울산하늘공원

120만 울산광역시민의 염원으로 건립된
울산하늘공원은 3차 연소 시스템 도입과
무인자동 유골운반 시스템, 복합공해방지 시스템,
대형로 등을 갖춘 친환경 종합장사시설입니다.

울산하늘공원은
운구, 장례, 화장, 봉안에 이르기까지
장례절차 전반을 One-Stop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고품격 종합장사시설입니다.

울산하늘공원은
120만 울산광역시민과 늘 함께하며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하·늘·편·지·세·번·째·이·야·기

무한한 가르침과 은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편히 쉬소서.

하·늘·편·지·세·번·째·이·야·기

이제 막 깨어난 봄처럼,
볼을 스치는 바람이 제법 부드럽구나.
우리 윤이가 아빠 반가워서
볼을 만지는 손길처럼 따사하고 정감이 있네.

- 하늘편지 중에서 -

전하지 못한 편지

울산시설공단

울산시설공단 Ul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 울산하늘공원

울산하늘공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T 052)255.3800 F 052)255.3809
www.skypark.or.kr

하·늘·편·지·세·번·째·이·야·기

전하지 못한 편지

울산시설공단 Ul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 울산하늘공원

당신은 사랑한다는 얘기를
가끔씩은 해주었는데
난 사랑한다는 얘기하기가
왜 그리 쑥스러웠던지
사랑한다는 소리 못한 게
너무 미안하고 후회되네.
여보, 입으로는 못했던
"사랑해"를 불러주고 싶네.

- 하늘편지 중에서 -

무한한 가르침과 은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편히 쉬소서.

하·늘·편·지·세·번·째·이·야·기

전하지 못한 편지

울산시설공단
Ul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

울산하늘공원

하·늘·편·지·세·번·째·이·야·기

전하지 못한 편지

목 차

발간사 4

1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7

2 영원한 배필 당신 61

3 나의 붕어빵 아들, 딸아! 83

4 그리운 할아버지, 할머니 103

5 내 짝꿍 형, 누나, 오빠, 동생아! 141

6 늘 함께한 벗 159

7 사이좋은 우리 가족 185

8 하늘나무 추모열매 199

9 부록 (공단 및 하늘공원 소개) 237

발 간 사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최 병 권

알록달록하게 산세를 물들였던 단풍이 하나둘 떨어지고, 어느덧 코끝을 시리우는 찬바람이 겨울을 데려왔습니다. 추워진 날씨보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추울까? 하는 마음에 오늘도 울산하늘공원은 유족들의 시린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도록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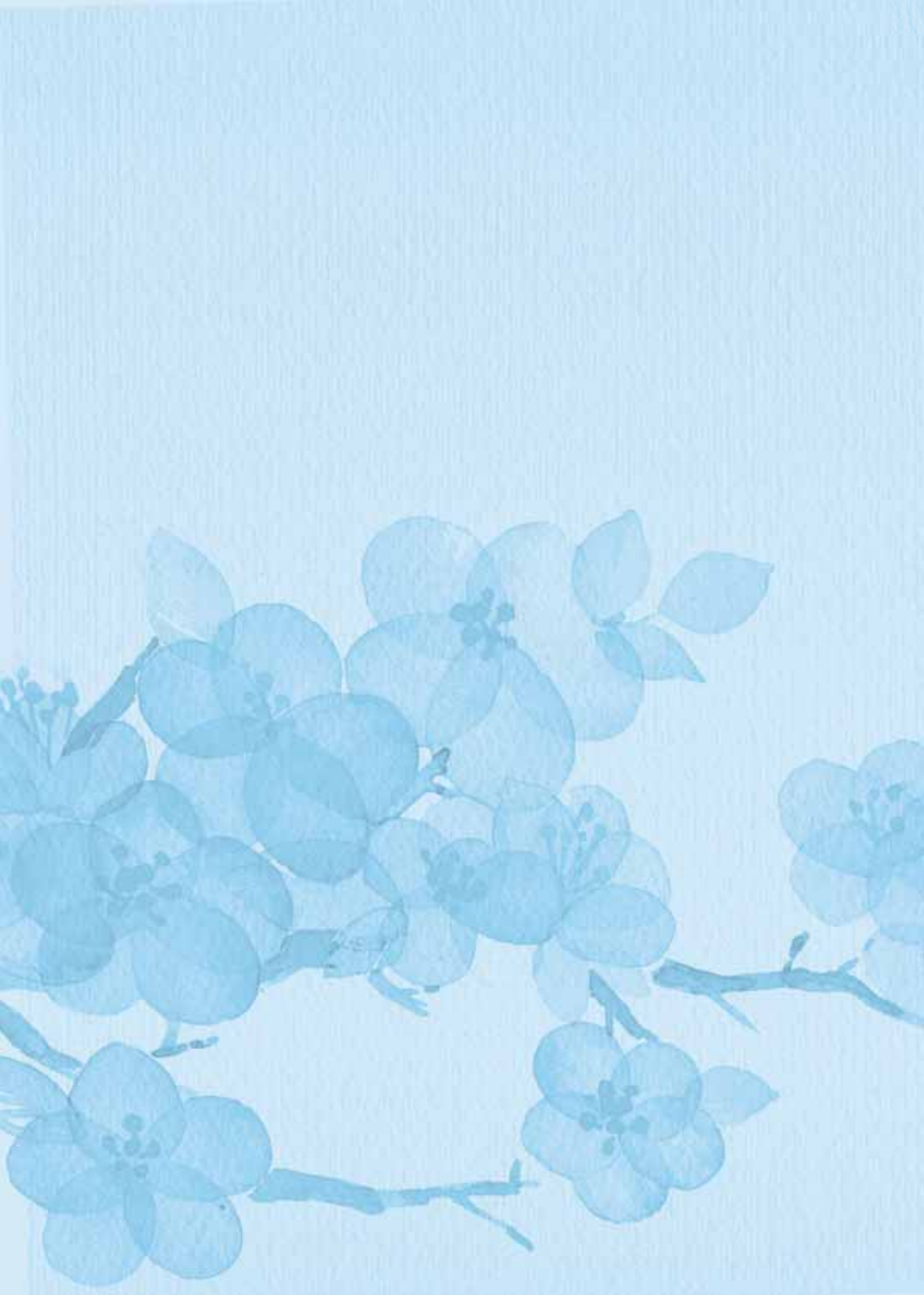
고인 살아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 고마움,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곳에 풀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하늘로 보내는 편지', '전하지 못한 쪽지'가 어느덧 세 번째 모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편히 쉬세요." 글귀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진한 그리움을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하였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비뚤빼뚤한 글씨로 표현하며 그리움을 알아버린 어린 손자의 마음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이 쓴 "아들아, 사랑한다."는 사무치는 그리움, 인생의 반려자를 보낸 남편과 아내가 눈물로 쓴 "보고 싶다."는 가슴 먹먹한 그리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상실감으로 마음을 비우기보다는 고인과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채워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책 속의 소중한 사연들이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가 되고,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특히 마음을 담아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 편지를 적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17. 12.



Chapter 01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당신이 나의 어머님이어서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어머님이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의 어머님이어서 좋았습니다.
당신이 나의 어머님이어서 든든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어머님이어서 기뻤습니다.

- 하늘편지 중에서 -

“

부모는 그대에서 삶을 주고도
이제 당신의 삶까지 주려고 한다.

- 척 팔라닉(Chuck Palahniuk) -

”

사랑하는 어머니 '김희선'님께 딸 '김은진'님이 보내는 편지

안녕 엄마!
지금 훨훨 신나게 잘 날고 있지? 엄마가 예전에 죽으면 새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말이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
엄마 떠나고 힘들지만 안 힘든 척 명랑하게 다니고 있어.
절대 기죽지 않고 말이야. 엄마 많이 보고 싶네. 한 번씩 우울할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엄마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어.
이제 2017년으로 해가 바뀌었는데 나는 벌써 고등학생이 되네.
세월 참 빠르지? 나 이제 외적, 내적으로 다 예뻐지고 공부도 항상
전교 1등하고 인성도 운동도 노래도 뭐든지 예쁘고 올바른 사람이 될 거야!
엄마도 항상 응원해주고 저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줘.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고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앞으로 오빠 아빠랑 평생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 되게 해주고, 엄마도 잘 지내. 사랑해!

사랑하는 어머니 '김희선'님께 아들 '김형진'님이 보내는 편지

날이 좋은 날, 날이 적당한 날, 날이 궂은 날 기분이 좋은 날, 기분이 적당한 날,
기분이 안 좋은 날, 내가 아프던 날, 내가 슬프던 날, 내가 힘든 날, 내 기쁜 날,
나의 모든 날에 엄마가 그립고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난 알고 있어. 언제나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먼 곳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세요.
저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 그곳에서 행복하게 다시 만나요.
앞으로 저의 모든 순간 엄마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행복한 날만 기득하길.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박영호'님께 딸 '박선민'님이 보내는 편지

큰딸이에요.

아빠 명절이에요. 수민이가 못 와서 꼭 안부편지 써달라고 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큰아빠, 큰오빠, 아재와 지훈이 보고 갔죠? 엄마랑 설거지하고 낮잠 자고 올라왔어요. 상 준비하면서 아빠 좋아하던 음식 생각 많이 났어요. 다음에는 엄마 도와서 맛있는 것 더 많이 챙길게요. 그리고 지금처럼 열심히 살게요. 수민과 엄마도 잘 데리고 있을게요.

겨울이지만 따뜻하게 나세요. 아빠 생각 많이 할게요.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어요. 사랑해요. 계속 곁에 있어 주세요.

엄마도 덜 슬퍼하게 잘 보살필게요.

사랑해. 사랑하는 큰딸 올림

사랑하는 아버지 '정상범'님께 아들 '정동희'님이 보내는 편지

아버지, 아버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지만 이렇게나마 드리고 싶은 말씀 적어 올립니다.
아버지가 평생 피와 땀을 흘려 모은 재산과 명성을 누군가가 아버지가 떠나신지 일 년도 안 된 지금 모든 것을 망쳐놓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그 마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일을 하면서 조금은 느끼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아버지의 노여움을 풀어드려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 많이 도우며 살겠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시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매우 아프셔서 혼자 계실 때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꼭 아버지 것이자 제 것인 전부를 아버지 말씀처럼 다 되찾겠습니다.
너무 어리석고 멍청했던 아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는 어머니 '이정순'님께 딸 '이은영'님이 보내는 편지

세상에 하나뿐인 나의 귀한 딸의 첫돌이 4월 7일.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편안한 보금자리의 죽음 4월 8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저녁에 돌잔치를 하고 이른 아침 엄마의 죽음 소식을 들은 날은…

가까운 사람의 긴 이별이 처음이어서, 그리고 아직 친정엄마의 자리가 너무 필요했던 나는 일 년 동안 가슴이 뻥 뚫린 듯했지. 그런데 시간이란 게 참 우스워. 일 년 후 손자를 낳고 벌써 그 둘째가 두 돌이 되어가요.

잘 지켜보고 있지? 살아있었다면 두 놈의 재롱에 흐뭇했을 텐데. 나도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어. 이 여사가 우리 삼 남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요즘 흔히 말하는 워킹맘에 아이 셋을 건강하게, 똑똑하게 키워내고, 요리 솜씨도 끝장이었던 우리 이 여사.

이 여사의 물 국수가 가끔 몹시 그립다. 꿈에 나와 요리법 알려주세요!

살아 계실 때 고마워하지 않고 속을 썩여 일찍 가신지 아닌지. 죄송해요.

소래가 만든 카네이션 두고 가요. 이 여사가 건강하게 날 낳아주고 잘 키워준 덕분에 나쁜 딸, 귀여운 아들 건강히 낳아 잘살고 있어. 고마워. 사랑해.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두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김용성'님께 아들 '김규태'님이 보내는 편지

아빠, 오늘 엄마와 같이 국화 한 다발 들고 왔어.
어제부터 비가 많이 왔어. 그 날도 비가 아주 많이 왔었지.
많이 울어도 티도 안 날 정도로. 아빠의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린 것 같아.
아빠, 보고 싶고 사랑해요.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하는데 잘 안되네.
그리운 우리 아빠, 또 올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김무용'님께 딸 '김미진'님이 보내는 편지

아빠, 아빠가 가시고 엄마는 열심히, 그리움 느끼지 않으려고,
그냥 열심히, 남은 생이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세요.
혹시라도 가족들에게 누가 될까 봐 갈수록 더 단단해져 가고 있어요.
건드리면 부러질 것처럼 이 악물고. 혼자서 괜찮다 하면서 버티고 계세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사는 게 참 재미없다'라고 했던 말 기억나요?
난 그 말이 잊히지 않아요. 사는 건 뭔가요?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그냥 맞춰 살면 되는 건가요?
아빠, 가족이란 뭘까요?
생각과 달리 서로에게 따뜻하지 못한, 대화할 공통의 주제도 점차 사라져가요.
아빠는 편안하시죠? 우리도 잘 지내요.
아빠, 늘 보고 싶고 그리워요.

사랑하는 아버지 '김국원'님께 아들 '김석규'님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아버지, 장남 석규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신 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잊고 지내 매우 죄송해요.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한 맘뿐이에요. 알게 모르게 사랑받은 게 너무 많은데. 막상 계시지 않으니 서운함과 좀 더 잘할 걸 하는 후회가 됩니다. 사랑의 방식이 달라 조금씩 다르게 느끼지만 늘 함께 하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원망한 적도, 저주한 적도 없어요. 왠지 아버지가 초라해 보이기만 했나 봐요. 규림이 봐줄 때 아버지가 사랑하는 손녀가 생겨 정성을 다해 돌봐주신 모습 더욱 감동했어요. 전 아직 그 정도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떤 마음인지 지금도 알 수 없어요. 내리사랑이란 그런 건가 싶네요. 우리도 아버지와 똑같이 한세상 살다 가겠지요. 아버지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신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하루하루 보내기에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앞으로는 더욱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게요. 아버지가 걱정할 일 만들지 않고 성실하게 살게요. 어머니는 건강하게 잘 계시고 화목하게 잘 살아요. 예수님 잘 믿고, 더욱 친밀하고, 더욱 사랑하며 살게요. 어머니가 행복하도록 온 자녀가 애쓰고 있고, 더욱 노력하며 살게요. 어디에 계시든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살아계신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추모예배하고 각각 추억을 공유하며 글을 쓰고 있어요. 늘 가족 모두를 사랑하며 섬기며 신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갈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장인어른 '차진수'님께 사위 '권효성'님이 보내는 편지

아버지, 저 권서방입니다.
먼저 이렇게 쓸쓸히 보내드려 죄송합니다.
자주 찾아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남아있는 민서 엄마가 제일 걱정이에요.
이제 의지할 곳 없어진 민서엄마, 무경이 하늘에서 잘 보살펴주세요.
그곳에서 장모님 만나서 즐겁고 행복하세요.
살아생전 소주 한 잔 더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좋은 곳에서 저희 아버님 만나 좋아하시는 약주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많이 힘들지만 잘 이겨낼게요.
민서, 다경, 태환과 같이 아버님 어머님 자주 찾아뵐게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게 지내도록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장인어른 '천기성'님께 사위 '강의근'님이 보내는 편지

아버님, 끝까지 편안하게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14년 전 자식으로 만나 예쁜 딸을 제게 주시고
부족한 저를 만날 때마다 반갑다고 술과 전어 구이를 주신 아버님.
어제는 아버님을 보내는 아픈 마음에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지금 창밖에는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보내는 마음은 힘들지만 가시는 걸음 창밖에 피어있는 꽃을 친구삼아
극락왕생하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오상석'님께 딸 '오은비'님과 사위가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우리 아빠, 하늘에서 잘 지내지? 항상 보고 싶고, 생각나고 또 생각나.
가끔은 마음이 아빠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늘 생각이 나고 보고 싶다.
내 결혼식 때 꼭 아빠 손잡고 싶었는데.
다음 생에도 아빠 딸로 태어나면 그때 꼭 손잡아줘.
아빠 무척 보고 싶다. 사랑해. 무척 미안해. 또 올게. 하늘에서는 외롭지 않기를.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제가 장인어른이라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인어른이 계셨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행동하더라도 나중에 똑바로 한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겠습니다. 또 집에 계신 어머님도 잘 제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못 미더우시겠지만 지켜봐 주십시오. 은비와 열심히 사는 모습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 자주 찾아 봬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유가 되면 자주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진택'님께 아들 '오승빈'님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막내아들 승빈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것만 같고, 너무 생생하여 실감이 안 납니다.
아버지 목소리, 애정표현 행동 하나하나가 보고 싶고 늘 그립습니다.
이번 생에는 너무 아파서 가슴이 슬퍼요.
다음 생에는 부디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번 더 저의 아버지로 태어나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수천 번, 수만 번 말해도 모자랄 만큼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작은 제 가슴에 아버지를 품고 살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말고 편안히 좋은 곳 가셔서 근심, 걱정 없이 지내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박재훈'님께 아들 '박상진'님이 보내는 편지

삶에서 죽음의 길로 통하는 편지글에 그 어떤 거창한 글귀들이 필요 있으리오.
사연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불꽃처럼 살다 가신 우리 아버지.
많은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떠났기에 이제는 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살아생전 유훈처럼 남긴 숭고한 가치와 삶의 철학, 해학과 지혜로 양분 삼아 저와 동생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어떤 말을 남겼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감히 다른 사람들에게 설파할 수도, 전도할 수도 없는, 우리만이 안고 가야 할 소중한 내적 가치입니다. 단지 그러한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또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결행할 수 있도록 위에서 많은 도움 보내주시면 그로써 큰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솔직하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말을 항상 조심하겠습니다. 내 이웃, 내 가족을 챙기겠습니다. 불의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육신의 가치보다 정신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무한한 가르침과 은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편히 쉬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재식 요한'님께 아들 '이기호'님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아버지,
무뚝뚝하고 표현할 줄 모르는 아버지, 어릴 적부터 엄한 아버지를 대하며 순간 욱하는 반감도 있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생각하며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엄한 아버지의 모습이 왜 이리 그리울까요?
붕어낚시 등 아버지와 함께 했던 낚시가 그립고 생각납니다,
아버지,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민물낚시, 바다낚시 실컷 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낚싯대 준비하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이순복'님께 딸 '수정'님이 보내는 편지

엄마,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만났어?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살아.

엄마 "사랑해"라는 말을 이때까지 30번도 안한 것 같아.

살아생전에 좀 더 잘해드릴 걸 후회가 된다. 엄마 정말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보고 싶어. 매일 엄마 생각할게.

천당에서 아버지와 재미있고 행복하게 잘 있어. 아버지와 놀러 많이 다녀.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행복해야해.

엄마, 불러도 대답이 없네.

사랑하는 장모님 '이옥이'님께 사위 '정환홍'님이 보내는 편지

장모님 셋째사위입니다.
어머님 쓰러지셨을 적에 자식 된 도리로서 지켜주지 못한 점 가슴 한 켠에 멍울로 남았습니다. 항상 마음으로는 잘해드려야지 하면서도 항상 부족하고 모자람만 보여드린 것 같아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사위사랑은 장모사랑이라 하지만 자식으로 부족한 게 많아서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실 적에도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어머님 보실 적에는 늘 부족한 자식으로 보여 진 것 같아 마음이 늘 아픕니다.
어머니는 아프신데 성한 몸인 저는 저만 생각하는 것 같아 죄스럽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아버님과 아프지 마시고 자식들에 대한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아버님과 편안하게 지내시길 빕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태주'님께 딸 '정은정'님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아빠

처음으로 아빠께 편지를 쓰네요.

아빠 7월인데 날씨가 많이 덥지는 않네요. 비라도 내렸으면 오늘 아빠를 보내는 길이 더 슬펐을 텐데 다행히도 비는 내리지 않네요.

지금 제 앞에는 제 신랑 김상욱이랑 같이 있어요. 아빠 걱정 매일 하면서 애도 많이 썼어요. 참 고맙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못난 딸이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사실 핑계 아닌 핑계지만 병원 갈 때 마다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좋지 않아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아빠 많이 사랑한 거 아시죠? 다행히도 제가 뵈러 갔을 때 살아계셔서 고마워요. 이쁘게 하늘나라에 가셔서 참 다행이에요,

원정이 언니 성훈이 오빠..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때는 가족들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아직도 아빠 모습이 아련한데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메여요.

지금은 혼자 가셨지만.. 제가 나이 먹고 하늘나라에 가면 멋지게 기다려 주세요..

거기서는 두발로 뛰어다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사랑해요, 아빠.

사랑하는 어머니 '서귀세'님께 딸 '김석임'님이 보내는 편지

엄마~ 언제 불러도 가슴 저린 훌륭한 어머니
33세 홀로 되어 오남매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적적하였습니까.
내 나이 70이 다되어 그 심정을 깨달았습니다.
장한 우리엄마 첫아들 보내고 멈춘 8년 세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말 못할 습습함과 묻어두었던 한을 다 내려놓고 부디 좋은 극락왕생하시어 상품 상생하소서. 엄마 자손들 잘 지켜주고 보살펴주세요.
감사하고 우리 다 사랑합니다.
못난 딸

사랑하는 어머니 '김복임'님께 아들 '전종구'님이 보내는 편지

당신이 나의 어머님이어서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어머님이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의 어머님이어서 좋았습니다.
당신이 나의 어머님이어서 든든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어머님이어서 기뻤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김영헌'님께 딸 '김명주'님이 보내는 편지

새벽 세시 끊임없이 울리는 벨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었어요. 그날....
아버지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한다는 엄마의 말에 설마 돌아가실 줄도 모르고.....
순식간에 장례를 치르고 하늘공원에서 영면하시면서도 순간순간 돌아가셨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한 해, 두 해, 아버지의 빈자리에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고 기댈 곳 없는 다 큰자식들도 마음 한자리가 허전합니다. 좋은 곳 갈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 할 때 보고 싶어요.
더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다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던 게 죄송해요.
더 잘살고 엄마한테 잘해드리면서 살게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하는 어머니 '김영숙'님께 아들 '박성준'님이 보내는 편지

엄마 나 식 끝나고 처음 왔어.
좋지 않은 일만 가득이었지만 꾹꾹 참고 있다?
나 힘들어도 잘 살아볼게!! 유미도 잘 돌보고..
엄마가 위에서 응원해줘~
반평생 속만 썩여서 미안해.
다음 생애는 내 자식으로 태어나주면 좋겠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엄마.

사랑하는 장인어른 '김덕환'님께 사위 '박민식'님이 보내는 편지

장인어른... 그 곳은 어떠신지요?? 둘째 사위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나셔서 인사할 겨를도 없었네요.
더군다나 저는 출장으로 인해 장인어른을 뵌 게 2주정도 된 것 같아요.
그전엔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뵀었는데....
장인어른, 오늘 날씨가 정말 맑고 좋네요.
하늘이 장인어른 잘 보내라고 도와주는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살아생전에 너무나 좋으신 분이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르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많은 회사 동료분들, 친구분들이 찾아주신걸 보며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성실하고 긍정적이며 인간미가 넘치시는 좋은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장인어른을 처음 뵀을 때가 생생하네요. 함께 찜질방을 갔었죠. 차가 너무 막혀 약속시간 보다 늦게 도착했었는데 웃으시며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 어색해하는 저에게 먼저 말을 계속 걸어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맛있는 음식을 먼저 챙겨주시고, 건강식품도 챙겨주시고, 제가 해결 못하는 일도 뚝딱 해결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승리는 걱정하지마세요. 제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게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사랑하는 아버지 '김덕환'님께 딸 '김명진'님이 보내는 편지

아빠, 너무 갑작스럽게 가셔서 잘 가란 인사도 못 드리고, 너무 아쉬워서 편지 남겨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두고 가실수가 있나 원망도 들고 그동안 왜 살갑게 대해드리지 못했나, 후회도 되고 너무너무 슬프고 원통한 마음을 뭐라 표현하기도 힘드네요.

혼자 혹시 고통스럽진 않았을까... 그렇게 또 혼자 외롭게 끙끙 앓고 도와달란 말도 못 꺼내 보고 가신게 아닐까.. 어찌나 맘이 아프고 괴롭던지요.

친정에 갈 때마다 큰 공주라고 불러주며 안아주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던 모습이 아직 생생한데 이제 그 아쉽고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앞으로 장녀로써 엄마랑 승리 잘 보살피고 가족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용기 내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좋은 데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서도 딸 자랑, 사위자랑 실컷 하시고 좋아하는 고기랑 막걸리 실컷 드시고.. 저도 나중에 가게 되면 아빠랑 다시 웃으면서 만날 수 있겠지요.

우리 항상 지켜봐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마다 우리 힘들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또 사랑합니다.

아빠 잘 가.

나중에 또 만나, 사랑해요.

사랑하는 아버지 '박태종'님께 딸 '박혜성'님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우리 아빠.

나한테 아빠 땜에 고생이 많다고 했지만... 내가 아빠한테 효도도 못해드리고 보내드린 게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한없이 후회만 되네....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새삼 느껴...

아빠 너무너무 사랑하고, 엄마 없이 20년간 혼자 병준이랑 나랑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한테 미움이 많이 남아서 매일 짜증을 냈던 거 같아... 그래도 아빠 딸로 태어난 거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었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곳 가셔서 엄마랑 행복하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기만 하고 건강해야해...

아빠!! 사랑해~~

사랑하는 아버지 '권순재'님께 딸 '권태이(권지수)'님이 보내는 편지

아빠!

잘 지내고 있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너무 미안해. 자주 찾아보질 못했네...

아빠! 난 아직도 아빠가 그냥 무주에서 일하고 있거나 병원에서 있는 것 같아.

벌써 4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 안 믿기지? 이상하다~~

이번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삼촌, 고모들, 그리고 효상 오빠...

모두 다 이유를 불문하고 다들 내 옆자리 지켜주고 다 내편이더라!!

이래서 가족이라 하나봐~ 근데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더더욱 내 편이었겠지??

아빠가 막 장난으로 욕하면서 때리던 것도 기억나고 그립고...

우리 신우 애교가 얼마나 많은데....

아빠는 아기 싫어하지만 신우 애교 보면 어쩔 수 없이 넘어갈 텐데....

아빠! 다음 꿈에 나타나줄 땐 무섭게 말고~

정말 정말 행복한 상황으로 나타나줘!

아빠 잘 지내고~ 너무너무 사랑해!! 또 올게~

사랑하는 장인어른 '박 홍'님께 사위 '함순길'님이 보내는 편지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그곳에는 편안한지요.

아버님. 제가 생전에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이 아버님께 죄송합니다.

아버님께는 항상 함 서방, 함 서방 하실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은 항상 저를 위로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덕분에 지금 함 서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날.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함 서방, 힘내라.' 아버님과 은아 때문에 저는 빠르게 완쾌가 되어서 아버님께 효도 아닌 효도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그 뒤로는 저희 곁에 함께 하지 못 했습니다. 다 저 때문이라 생각하며 은아, 처남, 처제, 고모님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두이'님께 며느리 '최미숙'님이 보내는 편지

작고하신 이후 15번째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흐른 세월에 비례해서 어머님께 못다 한 효도 때문에 아픈 마음은 더 깊어가기만 합니다. 어머니와의 인연이 14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왜 며느리로서 어머님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많았고 뭔가 조금씩 좋아지려할 때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함께 있던 그 시간 속에서 항상 며느리를 먼저 베려 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셨던 것 지금도 따스함으로 남았습니다. 어머님이 맛있게 해주셨던 음식들을 볼 때마다, 더욱더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아참! 어머니의 외동아들인 석원이 아빠가 많이 아픕니다. 저승에서도 기도할 일이 있다면 어머니의 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님 많이 사랑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도 저승에서 아버님과 함께 잘 보내세요.

안녕....

사랑하는 장모님 '김정미'님께 사위 '이우재'님이 보내는 편지

장모님.

장모님이 항상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사위입니다.

다른 말 다 필요 없이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사위 사랑 제대로 못 받으시고 가신 게 원망스럽습니다.

하... 살아계실 때 못한 점들이 많아서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하늘에서는 조금 더 편하신지요.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행복하게 지은이랑 잘 살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김용성'님께 딸 '김미정'님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우리 아빠!!
추석이 다가와~ 손주들이랑 조서방하고 왔어요.
오는 길에 성윤이한테 울산 할아버지한테 간다고 하니 뭐 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하늘나라 가서 멀리 있는데 어떻게 가?" ㅋㅋ
제가 멀리 있지만 할아버지 사진 있는 곳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했더니
이해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할 만큼 윤이가 훌쩍 자랐네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 잊지 않고 기억해 주어서 기특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해요. 아빠 돌아가신지 5년이 다 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은 것처
럼 늘 그리워요. 편안히 계시죠?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도 곧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일 다가오는데 부담되고, 긴장도 되고...
파이팅 해주세요~~
연휴가 길어서 좋긴 한데 시험 다가와서 걱정도 되고~~^^
열심히 사는 아빠 딸랑구 지켜봐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딸 바보인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버지 '오업이'님께 딸 '오선숙'님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아버지께.
돌아가신지 어느덧 몇 개월이 흘렀어요.
믿기지 않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묵묵히 계시고…
보고픈 마음만 한가득 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잘 계시리라 믿고
혼자 계신 엄마 잘 돌봐주세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장봉식'님께 딸 '장영미'님이 보내는 편지

아빠, 사랑하는 우리 아빠.

오늘이 둘째 딸 영미 생일이야~ 우리 아빠가 평소에 제일 이뻐한 딸.

맞나?? 맞지?? 영미 생일~~ 우리 영미 생일이네~

전화하면 이렇게 말해주셨을 텐데..

이젠 전화해도 "우리 영미" 하는 아빠가 없네..

그냥 내 마음 평하고자 아빠 보러 그냥 왔어요.

평소에 살아계시던 때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자주 전화 드리고 찾아뵐 걸~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빠. 할머니랑 할아버지, 작은아빠 높은 곳에서 다 만나있어??

아빠, 거기서는 외롭지 않으시게

할아버지, 할머니랑 행복하셨으면 정말 좋겠어~

아빠.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짐스러웠던 거 미안해요.

지금 그리움으로 변해 그렇게 생각했던 것 자체를 너무 후회해.

아빠. 미안해. 보고 싶어요. 정말 미안해요.

사랑하는 어머니 '김정미'님께 딸 '정지은'님이 보내는 편지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ㅠㅠ
살아계실 때 더 많이 뵙고 잘해드려야 했는데 라는 후회에 아직도 슬퍼요ㅠㅠ
마지막 때 엄마 못 만져본 것도 너무 후회돼요ㅜㅜ
그땐 너무 안 믿어져서 만지면 인정하는 거 같아서 못 만졌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후회되네요.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않고,
걱정 없이 사셨으면 해요.
신랑 꿈에 만 나오시고, 제 꿈에 안 나와서 이 편지 읽으시면 꿈에 나와 주세요.
민규, 오빠, 신랑, 저 다 열심히 사니깐 걱정 없이
하늘나라에서는 "행복" 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고 싶고요. 열심히 잘 사는 저희 지켜봐 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우열'님께 아들 '이기중'님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의논하며 잘했을 것인데 이럴 때 더 아버지가 보고 싶네요.
아버지 창현이도 이제 5살이 되어 말도 잘하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버지가 보셨다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말입니다.
어머니도 잘 지내고 있고 형도 지금 다리 나으려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누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를 떠나가실 줄 알았다면 평생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이렇게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정말 잘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박 홍'님께 딸 '박은아'님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빠,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죠..
저희들도 아빠 덕분에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 많이 보고 싶고, 생각나고, 그립고, 살아생전에 못해드려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아빠가 늘 자리 잡고 있기에 저를 지켜주시기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못난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시고, 말로 표현도 안 하시고 혼자 고생하신 우리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랑 행복하게 사시고 좋은 곳에 많이 다니시고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웃음만 가득하시길 바라봅니다.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버지 '윤상희'님께 딸 '윤효은'님이 보내는 편지

보고 싶은 우리 아빠. 아빠 거기선 편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아프지 말고 용준이랑 엄마랑 저랑 잘 지켜주고 잘 돌봐줘요. 소방관 대원들 볼 때마다, 소방서 지나갈 때 마다 아빠 생각나고 보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빠한테 받은 사랑도 많고 너무 커서 계속 아빠를 붙잡고 있나 봐요. 아빠한테 해 주고 싶은 거, 사주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만나게 되면 그 시간에 내가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아빠한테 갚을게요. 아빠가 밉지도, 원망도 안 해요.
내가 많이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편하게 쉬고 계세요.
금방 아빠 보러 갈게요. 바보 같은 엄마 잘지 켜주고, 거기선 많이 예뻐해 주세요.
곧 용준인 성인이 되고 저는 대학교 졸업하네요. 우리 가정 잘 이끌어주고 잘 지켜주고 저희 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아빠!!
생전 편지 제대로 쓴 적 없고 표현 맘껏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 우리아빠...
사소하고 평범한 건데 같이 밥 먹고 아빠 잔소리도 듣고 싶다. 전화하면 한 번도 안 받은 적 없고 바로 받던 우리아빠인데... 너무하다. 조금만 더 사랑한다고, 잔소리 듣고 말 잘 들을걸.... 아빠..... 엄마는 아빠 말로는 미워하지만 아직 아빠 많이 좋아하고 나보다 더 아빠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깐 우리 잘 지켜주고 잘 돌봐줘,
아빠 빨리 4가족 다시 만나자. 사랑해 아빠.

사랑하는 아버지 '황정모'님께 딸 '황선영'님이 보내는 편지

아빠.

오늘 저희 신혼집 이사할 곳 알아보러 엄마랑 같이 다니다가 아빠 보러 가고 싶다고 해서, 비 오는 일요일에 잠깐 들렀습니다.

벌써 아빠가 돌아가신지 3년이 넘었네요.

아빠, 생전에 살아계실 때 아빠 말 잘 듣고 덜 속 썩여 드렸으면, 아빠가 조금은 덜 애틋했을까요.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아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더 납니다.

그런 만큼 엄마랑 영민이한테 더 잘하고, 강 서방이랑 행복하게 상다가 먼 훗날에 아빠 뵙게 되면 아빠 속 썩인 만큼 더 열심히 살다가 왔다고 너무 행복하게 살다 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가시는 순간까지 걱정하시다가 가셨는데, 보고 계시지요??

아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정순'님께 딸 '은지'님이 보내는 편지

보고 싶은 엄마.
세월은 흘러 흘러 벌써 몇 년째...
그래도 아직도 떠오르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나도 우리 아들들에게 받은 만큼 사랑을 주며 살아야 하는데..
많이 부족한 엄마라 큰일이네.
너무 오랜만에 와서 미안해.
그만큼 이서방이랑 삼돌이들과 열심히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거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곳에서, 아프지 말고. 언제나 소녀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을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권 강'님께 딸 '권세은'님이 보내는 편지

아빠!!

벌써 아빠를 보낸지 2년이 넘었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오빠가 학교를 그만두고 미용사의 길을 걷겠다고 한 것과 엄마가 새로운 목표를 세운 것 등 여러 일들이 있었어.

나는 요즘 내 꿈에 대해 생각 중이야.

아빠가 물려주고 간 키 유전자 덕분에 나는 175cm가 되었어.

좋지만 왠지 안 좋은 거 같아.

이 큰 키로 인해 모델이라는 꿈을 생각 중인데,

내가 만약 모델이 되면 응원해줄 거지?

아빠라면 그럴 거라 생각해.

또 곧 있으면 내 생일인데 하늘에서도 축하해줘!!

이제부터 우리 가족 이뤄나갈 목표를 하늘에서도 꼭 응원해줄 거라 믿어.

사랑해요. 아빠...

사랑하는 아버지께 며느리 '가영'님이 보내는 편지

아부지, 저에요. 아부지의 맏며느리이자 막내딸, 이제는 승호엄마, 가영이에요. 하늘에서 저희 가족 모두 잘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가족 모두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구현언니는 예쁜 딸을 가졌어요. 아부지, 곧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텐데 언니가 힘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세요. 저희는 곧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전에 보셨던 곳 그곳에 엄마, 아빠, 저, 승호가 살 집을 예쁘게 짓고 있답니다. 오빠가 참 많이 노력했고 고생했어요. 그래도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 한아이의 아빠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 신랑이지만 항상 늘 고맙고 든든해요. 이 모든 게 다 어머니와 아부지께서 오빠를 바르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잘 키워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멋지고 예쁜 언니와 든든한 남편, 아주버님, 가족을 제게 주셔서 늘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할게요. 그러니 아부지께서는 거기서 좋은 거 많이 보시고 편안하게 지내셔야 해요. 늘 저희들 곁에서 지켜봐주시고 있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부지. 너무 보고 싶어요. 이제 웃으며 "아부지"라고 부르고 싶은데 아직은 아부지가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고맙다, 사랑한다, 더 많이 표현해가며 단단한 우리가족 만들겠습니다. 아부지께서 제게 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승호, 그리고 사랑이 잘 키우겠습니다. 우직도 부족하지만 어머니께도 잘하며 살게요, 아부지.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님께 며느리가 보내는 편지

아버님, 잘 지내세요?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천국에 가신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뭔가 아쉽고 그래요.
오늘 기일 2주기 맞아 아버님께 편지를 쓰네요.
살아계실 때 고마운 일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감사 말씀을 드릴게요. 저 임신했을 때 감자 구워 주신 기억이 제일 많이 나요. 감사해요. 이후 감자를 거의 먹지 못했네요. 맛이 없어서.
아버님 최고! 이제야 감사말씀 드려요. 아버님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늘 행복하시리라 믿어요.
다 함께 만나 천국 잔치 누릴 때까지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딸이 보내는 편지

보고 싶은 아빠,

오늘은 일요일이야. 율리 쪽에 윤 서방과 수제비 먹으러 가려 해.

자는 데 깨웠어? 내가 요즘 조금 살아났어. 다 아빠 덕분이야.

가끔 꿈속에 나타나 얼굴 보여줘서 고마워. 아빠의 추억과 대회 사진을 보면 더 그립지만, 항상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대명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햇살도 꿈이 확고하여 아이들 걱정은 좀 덜었어. 이제 열심히 가르치는 일만 남았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다행이야. 아빠가 항상 말했지. 얘들 너무 간섭 말고 잔소리도 적당히 하라고. 때가 되면 한다고. 그래서 믿고 내버려 두었더니 둘이서 잘하고 있어.

아빠가 곁에 있으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일 그리워.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가고, 웃고. 아빠 좋은 곳에 있지?

추신: 아빠, 저 다른 일 하나 또 추진해요. 용기 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사랑하는 아버지께 딸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설치다 아빠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다시 잠을 청할 수가 없네요.

매번 되뇌는 말이지만 대명이 장가가는 거라도 보고 가지.... 그렇게 예뻐했는데 너무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멀리 가버려서 제 가슴이 답답하네요.

내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했는지 몰랐는데 아빠 빈자라기 생김으로서 아빠에게 많이 의지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프지나 말고 먼 길을 가시지. 우리를 너무 안타깝게 하고 떠나 속상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빠, 근래에 저 아주 힘들고 아팠어요. 아빠가 계셨으면 매일 찾아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며 속을 털어냈을 텐데 이제 아빠가 안 계시니. 아빠가 안 계시니 요즘은 외식도 나들이도 없어요. 엄마는 애들 본다고 꼼짝 못 해요. 아무튼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줄 만한 게 아직은 없어요.

큰딸은 마냥 열심히 살고 있어요. 부질없다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라도 또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따라 살아요. 좋은 곳에 계시는 것 맞죠? 아프지 않은 것 맞죠? 부디 천국에서 재미있게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아빠, 날씨가 꽤 추워져서 걱정이야. 우리 아빠 추위 많이 타는데. 무척 더웠던 여름이었어. 그렇게 덥더니 아빠와 헤어지던 날은 마치 가을처럼 바람도 차고 추웠어. 비도 내렸고. 시간은 야속하게 흐르네. 3일 후면 아빠와 헤어진 지 벌써 49일이 된다. 여전히 나는 실감이 안 난다. 지금도 전화하면 아빠가 받을 것 같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을 것 같다. 울산 집 대문 열며 '왔니' 하며 반갑게 맞아줄 것 같아. 아빠도 전혀 실감 나지 않지? 엄마 곁을,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마지막 면회하고 나온 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엄마를 찾아도 끝나가는 시간 때문에 다시 불러주지 못해 내내 미안함으로 남아있어. 그때 분명 엄마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지? 미안해 아빠.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목소리 듣고 싶은데 그 흔한 동영상 하나 없더라. 사는 게 뭘 그리 바쁘다고 바쁜 척만 했었네. 미안하고 미안해. 마지막까지 병실에 있으면서 주사도 여러 군데 놓고 상처도 많은데 낯선 병원에 혼자 있게 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 아빠, 그렇게 혼자 외롭게 내버려 두고 또 이렇게 먼 길을 혼자 보내 미안해. 아빠, 몹시 보고 싶고 그리워. 정말 무척 보고 싶어. 늘 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많네. 사랑해 아빠. 내게 정말로 최고의 아빠였어. 자주 찾아보지 못하지만 늘 그립고 보고 싶어.

- 하노이에서

사랑하는 장인어른께 사위가 보내는 편지

장인어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늦게 가진 믿음이지만 신심 있게 교회를 섬기시던 모습 오래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사위였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신뢰해주던 모습이 제가 더 바르게 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장인과 사위라는 관계는 참으로 먼 사이였던 것 같아요. '효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위로서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던 같습니다. 못다 한 것 장모님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계실 것으로 믿고, 그곳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 보증해주며, 우리도 그 날이 오는 것을 보기 위해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장인어른의 후손이 칭찬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축복 통로가 되기를 증보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께 딸 '미정'님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아빠,

올해는 아빠 딸이 50세가 되는 해입니다. 늙어가는 딸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예쁜 모습만 보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예쁘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빠에게 늘 예쁜 딸이 되고 싶어요.

휘원이가 고려대학교에 합격하여 이번 달부터 서울에서 삽니다. 기숙사도 합격해서 일 년간 집을 구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편히 지낼 수 있어요. 학원도 여전히 잘되고 있고, 엄마도 건강하고 예배 잘 드립니다. 석규와 창현이도 직장 잘 다녀요. 규미는 네일아트 공부하면서 마트에서 일해요. 여전히 착하고 예뻐요.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규림은 건강하고 시끄럽게 사랑스럽게 미술도 잘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숙과 선영은 아이들 잘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합니다. 하준과 하민은 씩씩하고 영특하게 잘 자랍니다. 말썽꾸러기 규원은 술도 마시고 친구와 놀면서도 일도 잘하는 멋진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원은 4학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죠? 저는 엄마 잘 챙기고 아이들 잘 살피고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그립고 아빠 자주 생각이 나요. 길 가다가 아빠 닮은 사람 보면 더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딸 '이영애'님이 보내는 편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많은 사랑주신 사랑하는 엄마...
불러도 불러도 이젠 대답이 없으시니
엄마 딸 영애는 한 없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고통에서 지내시던 시간이 마음아파
이젠 아픔 없는 좋은 곳으로 마음 편하게 보내드리렵니다.
'냉이~~' 가끔 엄마를 이렇게 부르며 어리광 피웠습니다.
참 많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때론 화도 내었지만 이 모든 것 다 추억으로 가슴에 간직하여
엄마 몫까지 열심히 잘 지내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딸 '영이'님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아빠 없는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늘 걱정거리였던 마당공사 하느라.. 조금 힘이 들지만 분명 아빤 걱정이 돼서 우릴 지켜보고 있었겠지. 아주머니 꿈에서처럼 말이야. 참 앞마당에 오디도 보리수도, 앵두도 맛있게 잘 익었어. 작년 이맘때쯤에 소쿠리에 한 아름 따서 맛있게 먹었었는데… 아빠도 맛보라고 조금 가져 왔어요~

작년처럼 같이 모여서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아빠의 빈자리가 여전히 허전하고 그립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빨리 갔어… 조금만 더 있다가 오빠 예쁜 며느리도 보고, 나닮은 손주도 안아보고, 커가는 모습 보면서 할아버지 소리도 들어보고… 재롱도 보면서…

아빠, 그래도 늘 꿈에서 행복하고 좋은 얼굴이라 마음이 놓여. 꿈에서 안아주고 웃어줘서 고마워요. 보고 싶다… 너무너무, 아빠…

엄마랑 오빠랑 사위도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아빠 생각하며 아빠 추억하며 조금씩 웃고 조금씩 익숙해져가고 있으니까. 더 건강해질게요!! 지켜봐줘 아빠.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보고 싶고 부르고 싶고 안고 싶은 우리아빠… 너무너무 사랑해요. 또 올게요.

사랑하는 아버지께 딸 '나영'님이 보내는 편지

천국에 있는 우리 아빠에게,

아빠 딸 나영 왔어. 아빠가 있는 하늘나라는 어때요?

5월 5일은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었지. 아빠도 생각하고 있었지? 지난 5일 못 와서 미안해요. 섭섭했지? 혹시 삐진 건 아니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에요. 8일도 출근하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 오늘 왔어요.

나는 엄마, 오빠와 잘 지내요.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항상 잘 지켜봐 줘서 그런가 봐. 시간이 정말 빠르죠? 아빠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몇 달만 있으면 일 년이에요. 아직 이 곁에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엄마와 나는 아빠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비록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도 못 듣지만,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빠는 만났어요? 문득 할아버지가 아빠가 무척 사랑했다는 소리를 얼핏 들었어. 아빠가 보고 싶어 우리 곁을 빨리 떠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빠, 거긴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이지요? 여기서는 많이 아팠으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또 만날 테니까. 아빠, 우리 아빠가 자랑스럽고 존경해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늘나라에서 항상 지켜봐 주세요. 엄마는 내가 잘 챙길게요. 그런 다음 주에 올게요.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들 '박준성'님이 보내는 편지

아버지, 이미 이 땅에 아버지의 흔적은 그저 납골당에 모셔진 유해밖에 없기에 씁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나니 마음이 한층 가벼워 진거 같네요.

아버지 이 땅에서 많이 외롭고 힘들고 많이 지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혼자서 외로이 술로 인생을 달래며 늘 자신을 책망 하셨던 것이죠.

아버지 이제 그곳에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으로 마음을 달랩니다.

그곳은 이 땅에서처럼 슬픔도. 아픔도. 외로움도 더 이상 없으니까요. 그 나라는 모두가 서로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같이 웃고 같이 춤추고 같이 화평과 평강이 가득한 나라일 테니까요.

그 나라에서 저희 어머니도 잘 계시죠? 두 분 이제 아버지 나라에서 서로 사귐과 나눔과 서로 위하는 삶을 잘 누리고 계세요. 저도 아버지의 부름이 있기 까지는 저역시도 이곳에서 머물면서 충분히 배워야 하나 봅니다.

아직 안 부르시는 것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강과 참된 쉼을 풍성히 누리고 계세요.

저도 아버지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진원'님이 보내는 편지

엄마, 나 진원이에요.
저번 주에 못 와서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자꾸 눈만 감으면 엄마랑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너무 생생해서, 그래서 눈을 뜨기가 겁이 나더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앞으로 엄마랑 이런 거 저런 거 해봐야지 생각해둔 것들 전부 못하게 되어도 좋아. 대신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랑 해본 것만큼만, 딱 그것들만 한번씩 만이라도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오늘은 엄마의 양력 생일이야. 태어나줘서 고마웠어요. 우리 엄마여서 고마웠어.
우리 엄마, 존경하고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해♥ 다음 주에 또 올게.

사랑하는 아버지께 딸 '미영, 하영'님이 보내는 편지

아빠~

요새 너무 더워. 아빠는 안 덥지? 시원하게 있어야해~

하영이는 취업했는데 아빠 있는 곳 바로 근처야.아빠랑 가까운 곳에 있어서 외롭지 않겠다.

다음에 또 올게. 사랑해요♡♡♡

- 미영

아빠 나 취업했어요.

아빠랑 가까이 있어서 많이 보러 올게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 하영

Chapter 02

영원한 배필 당신

그 곳은 주소가 없어 소식 전하지 못해
마음속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 하늘편지 중에서 -

“

부부란 둘이 서로 반씩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써 전체가 되는 것이다.

- 반 고흐(Vincent van Gogh) -

”

사랑하는 남편 '정동수'님께 아내가 보내는 편지

정동수 영가님, 사랑하는 윤선이 아빠.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미안해요.

따뜻한 국, 밥, 포근한 저녁시간 하지 못하는 당신께…

가을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지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아내 '김희선'님께 남편 '김성열'님이 보내는 편지

여보 보고 싶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
이 세상에서 못해본 것 저세상에서나마 해보고 누리고 했으면 좋겠다.
늘 가슴 졸이고 불안해했던 것도 모두 지우고
마음껏 즐겼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는 열심히 잘살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고 이 남편이 많이 빌어줄게.
그리고 보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
하지만 지금은 옆에 없으니 많이 보고 싶다.

사랑하는 남편 '박재훈'님께 아내가 보내는 편지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2014년 그해 여름이 아직도 생생한데.
두 아이가 있어 살아갑니다.
죽을 만큼 멀리 계시니 지주 와 보지도 못하고 삶에 찌들어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끝이 날까요?
인연은 인연을 낳고, 그 모진 인연의 이어짐이 목 밑까지 차오르는 목마름이
이제는 힘드네요.
남은 세 식구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앞날이 어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으로 하루를 버티면서 살고 있나 봅니다.
지켜주시고, 길 열어주세요.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 빕니다.

사랑하는 남편 '강형곤'님께 아내 '윤말심'님이 보내는 편지

여보!

당신은 사랑한다는 얘기를 가끔씩은 해주었는데 여자인 난 사랑한다는 얘기하기가 왜 그리 쑥스러웠던지 사랑한다는 소리 못한 게 너무 미안하고 후회되네.

여보, 입으로는 못했던 "사랑해"를 불러주고 싶네.

여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정말 사랑했었소!

다른 건 하고 싶은 게 많지만 딱 한 가지 이 세상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 너무너무 열심히 살다갔으니 저세상에선 훌훌 털고 하고 싶은 거 잔소리 없는 데서 맘대로 하고 즐기세요.

나도 나중에 저 세상가거든 못 알아보지 말고 잘 지켜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 '이숙자'님이 보내는 편지

당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세 식구 각자 아빠가 바랄 거 하는 거 잘 알고 당신 걱정하지 않게 잘해나갈게.
그리고 우리민재 어제 힘들었거든. 우리 민재 다시 이런 일 없도록 당신이 잘 지켜주세요.
여보,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거는 잘 알지?
그러면서도 입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지?
여보, 이제 더 이상 힘들지 말고 좋은 것만 하고, 춤도 배우고 좋은 데만 다녀서 내가 나중에 가면 춤도 가르쳐주고. 잘생긴 인물로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나쁜 기억은 다 잊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
많이많이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사랑하는 아내 '이숙자'님께 남편 '김종욱'님이 보내는 편지

세월은 떠난 시위 같다더니 벌써 2년이 되어 가는데,
왜 이렇게 더 더욱 생각나는 것은 못 다한 얘기가 많아서일게요.
편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은 모두 잘 들 있소. 덕분에 두 외손자는 군대 가서 모두 건강하고, 두 손자는 잘 싸우고 잘 놀고 잘 크고 있다오. 그렇게나 좋아하는 손자들 잘 들 있소. 나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귀신같이 잘 안다고 하잖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자리 잘 잡고 계시구려. 함께 할 수 있게.
무상한 것이 세월이라더니, 잊혀 질 것 같지 않은 당신의 모습들이 자꾸만 퇴색하며 희미해질까 겁이 난다오.
생각은 자꾸만 민들레 홀씨처럼 강바람타고 훨훨 네게로 간다오.
부디 왕생극락 하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오영철'님께 아내 '황연자'님이 보내는 편지

여보!

가을 장맛비가 그칠 줄 모르고 내리더니 오늘 간만에 화창하네!!

나 이곳에 당신 찾아 왔는데.... 사진 속 당신 아무런 말이 없네요. 시간이 흐르면 잊힐까? 무엇이 그리 급해 당신의 의무 모두 다 팽개치고 그리 허무하게 떠나갔나요? 사랑보다 아픔만이 가슴에 남아. 나 이렇게 가슴이 메어지는데..

여보!

당신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온실 안 화초였던 나....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려니 어디로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기만 하는데....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오...

여보!

당신 쉬고 있는 이곳에 오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게 참 좋네! 높고 넓은 깨끗한 이곳을 당신 안식처로 선택한 것은 잘한 것 같아. 당신도 마음에 들지?

이제 당신도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히 쉬어요.

사랑하는 남편 '김덕환'님께 아내 '유춘례'님이 보내는 편지

언제나 가족을 먼저 챙기고, 나한테는 둘도 없는 좋은 남편.
기가 막히고 믿을 수가 없지만, 어머니 그리고 우리가족. 열심히 잘 살게.
당신이 지켜봐줘. 어머니도 살펴주고 나도 당신이 곁에서 항상 같이 해줘.
어머니 병, 나한테 있는 모든 나쁜 병, 정빈이, 당신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리고 내가 못했던 거, 속상하게 했던 많은 것들 용서해줘.
미안하고, 그리고 우리 여보 사랑한다. 좋은 곳에서 편안히 살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족 때가 되면 만날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남편 '황정모'님께 아내 '장차순'님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정모씨. 오늘은 비가 오네요.
항상 하늘공원에 오면 마음이 허전하고 슬프고 해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서 슬픔과 허전함을 뒤로 미루고 남아서,
슬픔과 허전함을 뒤로 미루고 힘내고 씩씩하게 살다가 당신한테 갈게요.

사랑하는 남편 '박경규'님께 아내 '김영미'님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여보!

잘 지내고 계시죠?

엊그제 가을이던데 벌써 겨울이라는 문턱에 서 있네요.

여기서는 많이 아팠지만 그곳에서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언제나. 겉으로는 무뚝뚝한 당신이었지만, 속마음은 언제나 다정하고 여린 당신,

사랑합니다. 우리도 아빠만큼 씩씩하게 살게요. 지켜봐줘요.

사랑하는 딸 (영은, 희은), 아내가 올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남편 '정정식'님께 아내가 보내는 편지

내 아들 성헌이와 내 딸 공주 재원이 아빠.
한 아들과 딸 하나를 더 얻게 된 우리남편.
당신이 가시고난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왠지 욕심이 더 많은 내 남편, 가시는 길도 자식들 앞에 세우고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신지 정말 이것조차도 셈이 납니다.
여보, 당신이라고 해보지 못했지만, 경상도 남자들도 꼭 말로 해야만 되는 나는 내 남편으로 보면 되지, 무엇이 필요하냐는 내 남편.
두 아들과 딸 둘을 가지신 욕심 많은 내 남편.
여보,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사신 거 경험 삶아 하늘나라에 가서
꼭 한번 멋지게 살아보세요.
별난 마누라 잔소리 듣지 않아서 좋겠지만 항상 당신 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멋진 인생사세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당신의 크고 넓은 빈자리에 그리움의 얼룩만이 가득한데,
사랑의 꽃잎 추억의 꽃잎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보련만…
채워도, 채워도 남은 빈자리, 당신의 큰 사랑 앞에 너무 작은 나!!
오늘도 당신이 그리워 이곳을 찾아와 당신의 흔적만 바라보다 갑니다.
여보!! 당신 사랑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 '이명숙'님이 보내는 편지

명절에는 잊고 있었던 사랑과 추억이 있었습니다. 설날이라 모두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세배도 했습니다. 온 식구들은 소풍 가듯이 당신이 잠들어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이름 있는 날에는 그리움이 더욱 몰려옵니다. 모두가 다 가버리고 없어. 든 자리와 난 자리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같이 있을 때에 당신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바람에 귀찮아도 했지만 외로움은 몰랐습니다. 홀로 서 있는 내가 요사이에는 외로울 때가 많아요.

정답이 없는 세상에 마음으로 함께 외쳤던, 소박 했지만 풍성했던 공연은 끝이 났습니다. 당신과 내가 연출하고 주인공이던 무대가 지금은 주인공이 두 아들과 며느리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관람석에서 말없이 구경만 하고 있답니다.

여행을 떠나던 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떠나 버려 원망도 많이 했답니다. 사랑이 넘치는 집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당신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 곳은 주소가 없어 소식 전하지 못해 마음속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관선'님께 남편 '김성진'님이 보내는 편지

여보세요, 관선씨.
내가 너무 늦게 당신을 찾아온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당신이 사랑했던 신랑, 이것저것 하느라 늦게 찾아왔어요.
당신이 계신 곳에도 가을은 찾아왔어요.
화창한 가을, 당신과 함께 오곡이 익어가는 계절을 만끽하고 싶어요.
다음 세상에서도 당신과 함께합시다.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지금도 당신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내 남편,
오늘도 너무 보고 싶고 생각나서 찾아왔어.
당신의 따뜻함, 성실함, 열정… 너무도 그리워.
모든 걸 다 받아주지 못하고 불평불만 너무 많았어, 미안해.
그 순수한 가장의 따뜻한 마음 영원히 잊지 말고 간직할게.
자기가 도와줘, 사랑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 '이명숙'님이 보내는 편지

3주기가 되던 날에는 남은 식구가 다 모였습니다. 철없는 손자들은 할아버지 제사라며 가족이 다 모여 있으니, 무슨 잔치 날인 줄 알고 신이 났습니다. 나와 아들 내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당신의 빈자리가 하나가 너무 커서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멀어져 간다는 느낌만 받았습니다. 항상 옆에 있어 소중함을 몰랐던 당신이 문득 문득 생각이 납니다.

삼 년 전 볕이 좋은 가을에 떠난 당신을 나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나는 생전에 둘이서 걷던 통도사에서 당신의 흔적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나만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홀로 걸으면서 지난날을 떠올려도 보았습니다. 머나먼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는 당신을 위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환생하게 해 달라며 기도를 합니다. 요즈음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와 밥상을 마주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행복에 푹 빠져 보는 꿈을 꿉니다. 결국에는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길을 혼자 힘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위의 사람들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삶의 중심으로 돌아와 또 다른 나를 찾아가고 있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애틋한 추억이라는 버팀목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모자라는 나를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당신께
요즘은 폭염이 너무 심해 무척이나 뜨겁답니다.
생활이 힘들 저도로 땀이 흘러 눈을 따갑게 하고 온몸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같이 못하는 당신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힘든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겠지요.
항상 우리를 보호해주는 듯 느껴지는 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겠지요.
마음 편히 지내소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항상, 늘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주희 공주님'께 '당신의 영원한 내 편'님이 보내는 편지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길 바라.
우리 서로 울지 말고 힘을 내자.
주희 공주님! 사랑해요!!
- 당신의 영원한 남편,
- 당신이 "내 편"이라 했지? 다시 적을게. "당신의 영원한 내 편"이 또 올게.
자기야
얼마 전 화장대 앞에 놓인 자기 사진을 보니 보고 싶더라.
길은 멀지만 애들 데리고 오니 참 좋네.
더운 여름 나고 또 올게.
보고 싶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당신!

시간이 흐르면 슬픔, 그리움이 덜할까 했는데 갈수록 마음은 깊어만 갑니다.

당신을 떠나보낸 지 3년이 지났네요. 많이 보고 싶고 많이 그립습니다. 당신이 그리워 이렇게 눈물 흘립니다.

자기야! 내 자기야!

정말 정말 많이 미안해. 그리고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

이제는 보내줘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Chapter 03

나의 붕어빵 아들, 딸아!

보고 싶은 아들아. 불러도 대답이 없구나.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빈 가슴속에 묻기만 해야 하네.

- 하늘편지 중에서 -

“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랑의 치료약은 없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Henry David Thoreau) -

”

사랑하는 딸 '수야'님에게 어머니께서 보내는 편지

수야, 또 한 명절이 지나가는구나.
너 없는 명절이 한없이 가슴 아프고, 너의 빈자리가 크게 더 크게 느껴진단다.
그래도 엄마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다짐한단다.
너의 몫까지 다 모아 언니를 더 훌륭하게 만들고 싶다.
너도 함께 기도해주렴. 우리 가족이 열심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다.
명절 한 살 더 나이를 먹는구나.
만날 때까지 잘 지내고 행복하길 바랄게.

사랑하는 딸 '남수원'님에게 어머니 '이명숙'님께서 보내는 편지

또 다른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
봄이면 기대에 차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잘할 힘이 생기는 것 같다.
사랑하는 딸 수원아!
너도 그곳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할 것으로 믿는다.
이승이든 저승이든 나의 영원한 딸 수원은
성실하고 예쁜 딸이기에 엄마는 늘 기대한다.

사랑하는 아들 '유동안'님에게 어머니 '고민자'님께서 보내는 편지

하늘로 간 아들, 너무나 보고 싶구나.
항상 곁에 있을 줄 알았지. 우리 곁을 떠날 줄 몰랐네.
항상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보고 싶은 아들아. 불러도 대답이 없구나.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빈 가슴속에 묻기만 해야 하네.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이윤'님에게 아버지 '이권옥'님께서 보내는 편지

윤아, 아빠 왔다.
창문 너머 아빠가 보는 걸 보고 있었니?
이제 막 깨어난 봄처럼. 볼을 스치는 바람이 제법 부드럽구나.
우리 윤이가 아빠 반가워서 볼을 만지는 손길처럼 따사하고 정감이 있네.
곧 다가오는 5월도 지금처럼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아빠는 윤이를 데려간 5월이 싫단다. 아빠는 가는 세월이 있으면 잡고 싶고, 되돌리고 싶고, 윤이를 다시 아빠 품에 안고 싶단다.
가끔 일하다가도 언뜻언뜻 윤이가 생각나더구나.
아빠는 우리 윤이를 한시도 내려놓은 적이 없어. 사랑한다. 우리 아기, 아빠 새끼.
먼 훗날 아빠와 만나면 꼭 껴안고 이제는 놓지 않을 거야.
아빠의 타들어 가는 이 속을, 이 마음을 잃지 마라.
오늘도 아빠는 말없이 너의 유골함만 무심히 보고 간다. 다음에 올게.
아빠 기다려.

사랑하는 아들 '부건'님에게 어머니께서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둘째 부건아,

생일 축하해. 엄마 곁에 있었다면 18번째 생일이겠구나. 엄마는 부건이 14살 생일에 머물러 있어서 18번째 생일 축하하기가 어색해.

잘 지내고 있지? 꿈에서조차 만날 수 없는 것을 보니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고 잘 지내는 것 같네. 부건이 태어난 날만큼 예쁜 봄날이야. 어제만 해도 비가 내리고 흐렸는데 오늘 아침은 하늘도 예쁘고 꽃들도 활짝 피었네! 부건 생일을 축하해주기라고 한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많이 보고 싶네. 형과 손잡고 잘 지내리라 믿는다. 부건과 형이 떨어져 있어도 걱정하지 않을게. 부건이 태어났을 때 참 많이 행복했는데.

엄마는 봄. 가을이 힘들다. 봄에는 너희들이 태어났고 가을에는 너희들이 떠났기 때문이야. 오늘은 부건 생일만 축하해주려 했는데 엄마의 넋두리가 시작되었네.

아들아 미안하다.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공부하고 뛰어다닐 나이일 텐데. 엄마가 죄가 큰가 봐. 다음에는 건강하게 태어나야 해. 알았지?

부건아, 생일 축하해. 무척 보고 싶어. 많이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 '부건'님에게 어머니께서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아들. 부건아.

벌써 3년이네.. 부건이가 그곳으로 떠난 지...

3년전 오늘새벽, 일어나지도 못하는 부건이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함께 가는 그 길을 오늘 혼자서 지나왔네. 주위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만 없네.. 이 무심한 녀석.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형도 일찍 떠나서 가슴 아프게 하더니. 이제 너마저 엄마 곁을 떠났니??

조금만 더 견뎌주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지.. 이 무심한 녀석...

엄마가 한 번씩 힘들다고 말한 게 너를 일찍 보낸 게 아닌가 하고 엄마도 많이 후회해...

엄마가 많이 잘못했어. 미안해 부건아..

그래도 아프지 않으니 좋지?? 그곳에는 모두가 좋은 거지??

엄마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엄마는 우리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엄마도 씩씩하게 견딜 테니 아들도 잘 지내야해. 알았지??

우리 집 막내 많이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보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 '박영상'님에게 아버지께서 보내는 편지

아들 영상아, 천국생활도 이제 46일이 되었구나. 하늘나라 생활은 힘들지 않는지. 아니면 자네가 천국에 있는지, 연옥에 있는지 이 애비는 사실 몰라. 그래도 나는 네가 편안하게 하늘나라에서 지내리라 믿고 싶다.

인간의 삶은 사형수 인 것 같다. 사형수는 형 집행 전까지는 미결수이지만, 집행 후 목숨이 끝나는 순간 기결수로 바뀌잖아. 인간의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모른다. 저승으로 떠났을 때, 이승에 남은 자들의 평가에 의해 죽은 자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중국에서 영상이 조문객이 700명이야. 그 분들과 애비는 같이 눈물을 훔쳤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자네는 아비와 가슴에 부활했어.

하느님은 일찍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지.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결코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위선적이지 아니하고 화평함이라. 영상아, 모든 이들이 너를 사랑했고, 교분을 나눴던 그 분들 삶속에 오로지 온유하고 화평한 마음만 갖도록 하늘에서 기도해다오. 그러면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박영상 너의 부활의 역사만 간직할 것이다.

힘들고 모진 너와의 이별, 견디기 힘든 이별을 이제는 부활의 의미로 승화시키고자 한다.

애비

사랑하는 아들 '김현중'님에게 어머니 '이숙자'님께서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우리 아들 현중아.
보고 싶다. 오늘이 크리스마스네. 천국에서 잔치 열렸지?
울 아들 생각할 때 마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
많이 보고 싶은데, 언제까지 그리워해야 하는지?
네가 없는 세상에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현중이가 있을 때 엄마는 바빠도 바쁜 줄 모르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너희들만 보고 살았어.
나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채워 나가려니 대책이 없네.
사랑해, 울 아들. 천국에서 아프지 말고 많이 행복해라.
엄마는 항상 기도 한다.

사랑하는 아들 '곽명승'님에게 어머니 '박순연'님께서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우리아들 명승이에게.
명승아 엄마가 너무 오랜만에 우리 아들을 보러 온 것 같구나..
미안해, 엄마가 자주 오지 못했어.
너무 미안하고, 우리아들은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지?
아픈데 없고? 아들 이번 해는 큰누나가 결혼도 하고, 우리 명승이 조카도 생겼어.
명승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지?
엄마도 명승이가 너무도 보고 싶고 그리워.
우리아들 많이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 '곽명승'님에게 어머니 '박순연'님께서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우리 아들.
오랜만에 엄마랑 누나랑 왔다.
오늘은 엄마도 아들과 함께 생일을 맞이하니 너무도 좋다.
아들, 큰누나는 민아 때문에 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더니 안 오고 작은 누나랑 왔다.
명승아, 서운해 하지 말고 오늘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생활해주기를...
아들 정말 많이 보고 싶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작은누나도 명승이 많이 사랑하고, 큰누나도 명승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명승아, 잘 지내고 엄마랑 나중에 또 올게~
아들 정말 정말 보고 싶고,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 '김지백'님에게 어머니께서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나의 황태자.
아직까지 엄마는 똥강아지가 엄마 옆에 재롱을 떨고 있는 것 같구나.
아직까지 너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이쁜 짓만 하는 너의 모습도 생생한데.
엄마가 왜 여기 와서 똥강아지에게 이런 글을 쓰는지 모르겠네.
만지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업어도 주고 싶은데...
사랑한다. 나의 황태자.
영원히 죄인인 엄마가...

사랑하는 딸 '박현진'님에게 아버지 '박영수'님께서 보내는 편지

아빠 딸, 우리 현진이. 오랜만에 불러보는구나.
그동안 아빠가 편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는 아빠도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아.
아빠가 한 달에 두 번씩만 현진이 얼굴 보러 온다고 삐진 건 아니지?
그런다고 아빠가 우리 딸 잊은 건 아니야.
언제나 아빠 가슴 속에는 항상 우리 딸이 살아있어.
아침저녁으로 거실에 걸려있는 우리 현진이 사진을 보고 아빠는 매일 이야기 한단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 아빠가 죽어서도 아빠 딸 데리고 살 거야.
엄마하고 오빠에게도 이야기했어.
아빠가 죽으면 우리 딸 옆에 같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깐 걱정하지 마.
다음에 또 쓸께.
사랑해, 아빠 딸.

사랑하는 딸 '은송'님에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보내는 편지

은송아♡♡♡
엄마가 너무 오랜만에 우리 딸 보러왔네~ 잘 지내지?
벌써 6월이 가고 7월이네… 시간 참 빠르다, 그치?
곧 장마가 시작이라서 비가 많이 온대. 예쁜 우산 쓰고 비옷 입고 다녀.
감기 걸리지 않게, 알겠지?
그리고 윤서가 은송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온다고 찾고 있어. 윤서한테 잘 있다고
인사해주든지 아님 꿈에서라도 우리 보러 와~
간식 맛있게 먹고, 엄마 아빠 또 올게.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보내는 편지

사랑했던 내 아들아…

오늘은 네 아들과 같이 왔다. 그동안 보고 싶었지?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이 곳 우리 걱정은 말고 못 다한 기도하며 하느님 나라에서 편히 쉬어라.

모두들 보고 싶어 한다. 오늘 아침에 누나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더라.

또 올 때까지 잘 있거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머니께서 보내는 편지

아들아, 하늘공원에 예쁜 단풍잎들이 물들었구나.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지?
엄마가 자주 오지 못해 미안하구나.
언제나 영혼은 웃으면서 보내길 바란다.
우리 꼭 다시 만나야해.

사랑하는 딸에게 어머니께서 보내는 편지

벌써 1년이네. 잘 지내고 있지?
떠나던 그때가 엊그제 같더니만, 세월이 가긴 하는구나.
너 보내고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맘이 아플 때도 많았건만,
어찌 그 마음을 다 보일 수 있겠나!
엄마 열심히 살다가, 너희 형제들 잘 지켜보고 버팀목 하다,
언젠가 널 만나러 갈까해.
그때 다시 만나서 안아보자.
열정적이던 딸에게 보답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사랑해.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머니께서 보내는 편지

아들아

많이 미안하고 보고 싶구나.

하루도 잊을 수 없는 내 아들, 멋지고 착한 우리 아들.

시샘이 나서 먼저 데려가셨는지…

착한 아들, 우리 이 다음에 꼭 만나자, 알았지?

엄마가 기도할게, 우리 다시 만나길…

Chapter 04

그리운 할아버지, 할머니

살짝 어깨에 손을 닿으면
'아이고, 시원하다 아고 시원하다' 하시던
그 미소 띤 입모양도 보고 싶고,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느낌이 중요하다며
인생 바르게 살라하시던 그 말씀이 귀에 선해요.

- 하늘편지 중에서 -

“

이 사랑의 꽃봉오리는 여름날 바람에 마냥 부풀었다가
다음 만날 때엔 예쁘게 꽃 필 거예요.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

”

사랑하는 할아버지 '최해봉'님께 손녀 '최혜정'님이 보내는 편지

새해가 또 밝았네요.
아직도 할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아 슬퍼요.
올해도 우리 가족을 보살펴주세요!
항상 할아버지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갈게요.
동생이 이제 고3이예요. 혁이가 좋은 대학 가도록 돌봐주세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고용포'님께 손자 '송민주'님이 보내는 편지

할아버지, 저 민주예요.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어요. 벌써 제가 10살이 되네요!

오늘 삼일절인데.

할아버지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별로 멀지도 않은데 자주 못 와서 정말. 정말 미안해요.

저는 하늘나라 가면 친구와 놀지 않고 할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김국연'님께 손녀 '규원'님이 보내는 편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요.
할아버지가 가신지 벌써 2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뭐했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흘렀어요.
저도 회사 다닌 지 3년이 다 되어가요.
사회인으로서 야간대학에 다니고 하루하루 의미 있게 보낸 시간이 많은데 할아버지 천국 가신 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잊고 살게 되네요.
생각해보면 저게 주신 사랑의 반도 보답을 못 한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 좋은 말 많이 못 해 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자랑스러운 손녀인 거 알아요. 그만큼 저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생전에 계실 때 민망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 드렸네요. 보낸 사람이 할아버지가 처음 이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항상 지켜보실 것을 아니까 부끄럽지 않고 또 할아버지 곁에 갈 때까지 자랑스러운 손녀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또 찾아뵐게요. 편히 지켜보고 계세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할머니 '손순분 '님께 손녀 '현희/정희'님이 보내는 편지

할머니 안녕? 난 오늘도 편지를 쓰네. 내가 학교 때문에 못 온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내 글씨가 삐뚤삐뚤해도 잘 봐줘!
할 : 할머니 근데 있잖아, 난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우리 가족 중에선
머 : 머니 머니 해도 울 할머니지! 할머니! 내가 일본어 중에서 좋아하는 말은
니 : 니코-니코니 라는 말이야.
사 : 사랑해
랑 : (사)랑이 알지? 우리 집 고양이 하하. 친할아버지랑 놀고 있어?
해 : 해지기 전까진 우리보고 집으로 가. 그리고 나 걱정 안 해도 돼!
사랑해! 너무 짧지? 미안해. 현희.

할머니, 나 정희야. 여기 바람이도 있다.
할머니! 있잖아, 나 애니고에 서류내고 면접 보고 시험 보려고 서류를 냈거든. 근데 서류 합격했다!! 히히. 나 거기 합격하면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거 한가지 다 들어준대! 무조건 다된대!!! 하하하 그리고 할머니 거긴 친구들 많아? 거기 좋아? 근데 할머니! 왜 내 꿈속에는 안 들어와? 너무해. 서러워. 와주라.
내가 젤로 좋아하는 핸드크림 발라줄게. 냄새 좋지? 오렌지 향 나지 않아? 오렌지 먹고 싶지?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 그려줄게.
사랑하는 할머니! 사랑해. 잘 자 할머니!

사랑하는 할아버지 '김국연'님께 손녀 '규림'님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할아버지,

규림이에요. 오늘 할아버지 기일이에요.

저는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조금은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 새벽 4시 40분, 할아버지 혈액형은 B형, 이름은 김국원이지요.

할아버지에게 먼저 편지 쓰려 했지만, 가족들과 같이 쓰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4학년이 됩니다. 작은 언니가 이제 20살이라서 저만 어린이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할아버지와 가족들을 꼭 기쁘게 해드릴게요.

저는 내일 한산도 가요. 할아버지와 같이 간 것 기억나죠? 가서 고구마도 먹고 굴도 많이 먹었지요.

저는 할아버지를 1등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을 때 자주 안 가서 미안해요. 할아버지가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했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아직 있다면 자주 찾아갈게요.

할아버지 저를 키우시느라 힘드셨죠? 제게 귤도 까주고 사과도 깎아 주고,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할아버지와 함께 100살까지 살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됐네요. 저는 세상에서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아질 것이에요.

우리 가족 정말 기쁘게 해주세요.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권현술'님께 손녀 '권예나'님이 보내는 편지

할아버지, 건강하시죠? 저 반장 되었어요.

그것도 몰표로. 잘했죠?

할아버지 천국은 어때요? 천국은 아주 좋죠?

할아버지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제가 할아버지 계실 때 자주 찾아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 내일 큰고모 생신이래요.

할머니가 매일 타주는 커피 맛있죠? 당연히 맛있겠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무척 그리워요. 그곳에서 잘 계셔야 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김병렬'님께 손자 '정채원/채영'님이 보내는 편지

외할아버지께, 저 손녀 채원이에요.
무척 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모습을 볼 수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가족을 보고 계시리라 믿어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엄마, 이모, 외삼촌 특히 외할머니가 많이 울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채원이가

외할아버지, 우리엄마를 키워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외할아버지 잘생겼어요!!
진짜로 고마워요. 채영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 '이재식'님께 손녀 '이도연'님이 보내는 편지

할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나는 당신의 귀여운 손녀딸이에요.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했던 막내손녀 도연이에요. 천국에 가셨으니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겠지요? 병원에 누워 밥도 잘 못 드시던 할아버지 모습을 보고 무척 억울했어요. 아직은 안 되는데, 아직은, 하면서요. 나는 아직 너무 어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는데. 열 살까지 당신과 할머니 손에 자란 나는 당신을 내 아버지인양 따랐습니다. 할머니보다 당신과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을 좋아했고, 먹을 것이 잔뜩 들어있는 장롱에 들어가 할아버지의 과자를 훔쳐 먹기도 했었죠. 그래도 그때 훔친 과자 지금은 다 갚았어요. 당신이 좋아했던 '빠다코코넛'은 지금도 맛있어요. 병원에도 사놓았는데 드실 수 없는 게 무척 속상했어요. 내가 좀 더 건강했을 때 갔어야 했는데. 식사도, 호흡도 제대로 못하실 때, 당신을 마지막이랍시고 찾아가서 당신 손을 잡던 날, 일주일 기다려주고 가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젠 제가 기다릴게요. 꿈에라도 한번, 저 열심히 살 테니까 꿈에 한번 나와 주세요. 못 다한 말, 먹여드리지 못한 것 모두 내가 다 할게요. 손녀는 처음이어서 서툴렀어요. 다음 생엔 꼭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녀딸이 될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돌아가셨으면 다시 돌아와야지요. 크고 따스한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야죠. 불로 타올라 한 항아리가 되어버려 그나마 다행인가요? 이 작은 한 품에 꼬옥 안아드릴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할머니 '김순이'님께 손녀 '전성은'님이 보내는 편지

할머니, 저 성은이에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꼭 좋은 곳 갈 거예요!
좋은 곳 가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일만 생겨야 해요.
제가 할머니에게 해드린 것 보다 할머니를 위한 마음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커요. 할머니 사랑해요. 항상 저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할머니 사랑하는 거 알죠?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할머니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할머니 곁에서 했던 모든 추억을 떠올리며,
할머니의 소중함, 따뜻한 온기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또 찾아뵐게요.

사랑하는 할머니 '강길자'님께 손녀 '한주현/영순'님이 보내는 편지

할머니, 저 주현입니다.
우리 엄마 키운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잘 모시겠습니다.
할머니 기억이 생생한데 떠난 게 믿기지 않습니다. 한서방도 잘 돌볼게요.
맡겨만 주세요.
사랑합니다. 편히 쉬세요!

할머니, 나 영순이야.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엄마, 아빠, 주현, 시윤 이모와 같이 왔어. 오늘 보라언니도 온다고 했는데 할머니 보고 싶다는 사람 이렇게 많아?
할머니, 하늘에서 친구 많이 생겼어? 할머니는 친화력이 있으니까 잘 지내지 그렇지? 할머니 요즘은 왜 내 꿈에 안 나타나? 친구와 이야기 하다고 안 오는 건 아니지? 천국에 코코도 있는데 같이 놀고 있어? 조금 있다가 할머니에게 갈게.
할머니 사랑해. 우리 주소 잊지 마. 신안군 팔금면 장촌리가 할머니 주소야. 잊지 마! 할아버지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대. 우리 집 주소는 밑에 적었어. 울산 동구 전하2동 이편한세상 110-1302. 꼭! 우리 이름도 잊지 마!

사랑하는 할머니 '박경애'님께 손녀 '정혜인'님이 보내는 편지

할머니!

저 왔어요, 저 혜인이에요.

할머니와 여행도하고 캠핑도 하고 생일날 파티도 즐겁게 하고 싶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좋은데 가세요.

2017년 3월 12일 정혜인 올림

사랑하는 할아버지 '조정식'님께 손녀 '임진희'님이 보내는 편지

하늘나라로 가신 할아버지께
평생을 우리 위해 사신 할아버지 그곳은 좀 편안하신가요?
벌써 보고 잡네요.
같이 해외여행 가고 싶었는데, 같이 밥 먹고 얘기 나누고 싶은데, 같이 술 한 잔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네요.
혼잣말뿐이고 너무 슬프고 아쉽네요.
부디 거기선 해복하시길 바라요, 할머니와.

사랑하는 할머니 '김임선'님께 손녀 '문혜영'님이 보내는 편지

할매, 오랜만이야. 내가 너무 오랜만에 할매 보러왔네 미안해. 올 엄두가 안 나서 이제야 이렇게 왔어 나 이제 22살 됐어.시간 참 빠르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줄 알았는데 더 보고 싶다. 나 2월에 대학교 졸업해. 다들 잘 지내고 있어. 승현이도 요번에 대학교 입학해. 나는 이제 미용실 취업하구 할매한테 꼭 머리해주고 싶었는데 많이 아쉬워.저번 설쯤에 내 남자 친구 데려와서 보여줬잖아. 그 때 다 지켜보고 있었지? 요번에는 같이 못 왔어. 군대에 가서 다음에 휴가 나오면 꼭 같이 올게.거긴 안 추워? 여긴 너무 추워. 한솔이도 얼마 전에 할매 있는 곳으로 갔어. 한솔이 보면 할매 좋다고 졸졸 따라 다니겠다. 그래도 할매 옆에 한솔이라도 있어주니 안심이 좀 되네. 아직도 후회를 해. 좀 더 할매한테 잘했다면 마음도 덜 아팠겠지?할매, 나 어릴 때 기억나? 같이 밥 먹고 아빠 뒷얘기하고 ㅎㅎ 그 때 진짜 좋았는데.길 지나가다가 할매같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보면 괜히 눈물 나고 마음이 아파. 할매 생각하면서 평생 봉사하면 살 거야. 많이 보고 싶다.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 했던 거 많이 미안해.난 다음 생에 태어나도 꼭 할매 손녀로 태어나고 싶다. 죽을 때까지 절대 잊지 않을께. 내 마음 한구석엔 항상 할매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 거야.나 취업해서도 잘 할 수 있게 응원해줘.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해. 우리할매 혜영이가 많이 사랑해

꿈에도 한 번씩 나와 줘. 알겠지? 다음에 또 올게.

사랑하는 할아버지 '정한상'님께 손녀 '조은서'님이 보내는 편지

외할아버지, 저 은서에요.
벌써 안본지 4년째네요. 많이 보고 싶어요.
살아계실 때 정말 재미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외할아버지랑 있을 때 행복했거든요.
지금도 외할머니랑 잘 있지만 외할아버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늘에 있으신 외할아버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외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은서

사랑하는 할아버지 '이채원'님께 손녀 '이유솔'님이 보내는 편지

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 저는 이유솔이에요^^
외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정말 재미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정말 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시네요.
외할아버지는 88세일 때는 꼭 1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진짜 돌아가실 줄 모르고 친구, 언니, 동생이랑 너무 신나게 놀아서 죄송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잘해드릴걸 그랬어요.
할아버지랑 가족이랑 고기 먹을 때도 정말 신이 났는데...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같이 고기 한 번 먹고 싶었는데...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 못해 드렸는데, 할아버지! 용돈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88세까지 계신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 하늘나라에서도 잘 지내세요. ^^~
그리고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변양섭'님께 손자 '이혜준'님이 보내는 편지

먼저 내 곁을 떠나신 외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큰 소녀 혜준이에요.
12월1일 급체한 것 때문에 병원에 가셨던 할아버지를
그 길로 다신 보지 못하네요.
저랑 약속하신 것 기억안나세요? 제 졸업식 오시고, 제가 결혼하는 것 까지 다 보시기로 약속하셨으면서... 저 두고 먼저 하늘나라 가시면 어떡해요.
갑자기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시면, 저희는 어쩌면 좋을까요. 할아버지 없이 가게 될 이사, 할아버지 없이 가게 될 학교들,
할아버지 없이 맞이하게 될 매일의 아침.
돌아가시기 전 날,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뭔지 아세요?
"힉교 잘 다녀 온나. 이따 보자."
이 말 한마디만 남기고 떠나신 할아버지 너무해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해요. 예수님이 할아버지와 함께 하실 거니까, 우리를 하늘에서 켜주세요.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할아버지!!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했습니다.
전 영원히 할아버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하는 할머니 '정병순'님께 손자 '이민욱'님이 보내는 편지

2016년 11월15일 밤 09시 40분... 이 날을 평생 가슴에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립고 그리운 우리 할머니. 그동안 많이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할머니 가시는 길 편안하시라고 많은 분들이 애도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많이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할머니 좋아하시는 홍시 사들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젠 하늘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쉬세요. 보고 싶고, 그립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조판남'님께 손자 '김기욱'님이 보내는 편지

살아생전, 평생 해오신 일이 있으시다면, 그 제1은 걱정일 것입니다.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 친지, 주변 지인들을 생각하시며, 수십 년이 지난 일들도 또렷하게 기억하시고 회상하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고, 짠한 기분을 느끼고, 또 흐뭇해하고 기뻐하셨던 사랑 가득한 나의 할머니. 힘드셨지요. 아마 때로는 지독히도 외로우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셨지요?혼자 많이도 우셨을 할머니.그럼에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색하지도 목할 그 인생. 수고 많으셨습니다.하늘에서, 이승이 아닌 저승에서, 이 세상 아닌 저세상. 그 세상에서 들으셨나요?할머니가 사랑하는 그리고 할머니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큰딸, 둘째딸, 셋째딸, 막내딸, 손주들, 친척들, 지인들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소리를 마음들을요.보고 싶어요. 아직도 할머니가 자박자박 끊이신 망경동에서의 김치찌개, 소고기국이 먹고 싶어요. 할머니가 갓 해주신 가득 퍼담은 그 백미 밥이 먹고 싶어요. 얇게 썰어 부추랑 버무린 무김치가 먹고 싶어요. 고추와 부추를 잘 섞어 부친 고추전이 먹고 싶어요. 그 손길이 그리워요.그 말투와 눈빛과 말씀하시며 주변을 매만지던 그 분주한 손동작이 그리워요.살짝 어깨에 손을 닿으면 '아이고, 시원하다 아고 시원하다' 하시던 그 미소 띤 입모양도 보고 싶고,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느낌이 중요하다며 인생 바르게 살라하시던 그 말씀이 귀에 선해요. 할 말, 드릴 말씀이 많아요. 평생 나눠서 꾸준히 편지 올릴게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김충식'님께 손자 '김성민'님이 보내는 편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무척 사랑하는 성민이에요.

할아버지 자꾸자꾸 생각이 나네요...

할아버지 잘 지내지요??

저는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슬프기도 하고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거기서는 건강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문흥순'님께 '권민지'님이 보내는 편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민지에요. 오랜만에 찾아뵙죠? 죄송해요.
지금은 학교 방학이에요. 곧 있으면 개학이에요.
개학하면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원도 잘 다닐게요.
그리고 개학해도 많이 올게요.
돌아가시기 전에 더 잘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지금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지만, 죄송하고 사랑해요.
하늘에서도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할머니 '정정모'님께 손녀 '송희원'님이 보내는 편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희원이에요.
할머니를 보낸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네요.
할머니를 보아도 울지 않으려 했는데 또 울어버렸네요.
오늘은 할머니께 잘 보이려고 옷도 예쁘게 입고 왔는데, 어떠세요?
저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더 잘 해드리고 싶은데 후회하기는 너무 늦었죠?
앞으로 더욱 자주 웃으며 올게요.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김흥곤'님께 손자 '최서윤'님이 보내는 편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이에요. 할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평소에 가게 갈 때, 할아버지 댁에 놀러갈 때, 항상 웃으면서 반겨주셨는데....

그리고 "이노무 생이야, 똘똘아" 하면서 환하게 불러주셨던 것도 기억에 남네요.

평소에 할아버지가 장난치는 거에 짜증도 내고 막 피해 다녔던 거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베풀어주신 사랑, 다 갚지도 못하고 되돌려 주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아직 제대로 잘 해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벌써 가버리나요. 평소에 시간 남을 때 가게 더 자주 들릴걸.... 할아버지 아프다고 엄마가 병원 가보자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애써 웃어주신 거 모르고 건강한줄 알고, 맛난 거라도 사드릴걸.... 후회만 늘어지네요..

토끼 죽었을 때도 슬펐는데 인간의 죽음은 비극 적임을 피부에 와 닿으며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시험 친다고, 공부한다는 핑계도 자주 들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제 마음을 여기다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세상에서는 이곳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세요.

제 눈물 담은 편지 할아버지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이영학'님께 손녀 '이소연'님이 보내는 편지

할아버지~ 이 편지가 정말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많이 보고 싶었어요.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할아버지라고 말도 못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가셨어요. 얼굴 한번이라도 보고 가시지..
엄마는 만나셨나요?? 두 분 다 그쪽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말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요. 많이 보고 싶네요.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핑계 들 때문에 죄송해요. 한번 만, 딱 한번 만이라도 우리 딸.. 우리 손녀.. 한 번만 딱 한 번만 듣고 싶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계세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할머니 '이두이'님께 손자 '김석원'님이 보내는 편지

할머니, 우리 할머니~
명절 때마다 "안녕하세요~"' 라고 웃으면서 받아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우리 아부지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든데 할머니 하늘에서 잘 돌봐 주세요.
보고 싶어요~ 우리 할무니.

사랑하는 할머니께 손녀 '이남주'님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나의 할머니.
살아계실 적에 항상 익숙하게 부르던 하머니라는 친숙한 단어가 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고, 요양병원에 갔을 때... 호흡하는 것이 힘들어서 인공호흡기로 숨을 힘들게 쉬고 계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믿겨지지가 않아서 눈앞에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할머니라고 불러보라던 엄마의 말에도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작별인사가 되기 싫었어요.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남주 왔냐?' 라고 말해주실 것만 같아서요...사랑하는 나의 할머니.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픈데도,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든 가족들이 할머니를 위해서 모여 있는 오늘도 저는 왜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걸까요? 보고 싶어요. 언제나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것만 같았던 나의 할머니가. 이제는 하늘을 보며 그리워해야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지만, 오늘 그리고 내일 앞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자랑스러운 손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씩씩하고 밝게 살아가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아빠를 낳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많이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손녀 '규미'님이 보내는 편지

할아버지가 전에 한산도 가서 사준 모자 잘 쓰고 다녀요.
그 모자 쓸 때마다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 모자 아니었다면 할아버지 생각 많이 안 났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추억도 되새기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마트에서 일해요.
또 미용도 배우고 있어요. 할아버지 가시고 많은 것이 변했어요.
마트에서 일하면서 할아버지 비슷한 사람이 오면 할아버지 생각나요.
걷다가 할아버지 뒷모습 비슷한 사람 만나도 생각이 나요.
할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지금 우리 옆에 없어도 꼭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천국 계시다고 믿을게요.
소소한 추억 많이 만들어 주고 가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손녀 '정희'님이 보내는 편지

할머니 거긴 어때? 좋아? 거기 있으니까 편하지? 거긴 어떤 곳이야?
지금 천국에 있지? 이 편지를 읽고 있어? 읽었으면 좋겠다.
거기 할아버지도 있지? 할아버지께 안부 전해줘.
할머니 보고 싶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니까 알게 됐어.
미안하고 고마워. 우리를 돌봐줘서 고마워,
할머니. 그땐 우리가 너무 철이 없었어.
그리고 나 이제 6학년이다. 현희는 5학년이야. 나는 일 년 후에 중학생이다.
신기하지?
할머니 내 옆에서 언제나 웃어줘. 그리고 내 꿈에도 나와 줘.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는 나 안 보고 싶어? 그렇겠지. 우리가 너무 소리 지르고, 바쁘다고 딴청부리고, 편식해서. 미안해 정말. 진심이야. 용서해줘.
어쨌든 할머니. 내 꿈에 나오고 힘내.

사랑하는 할머니께 손자 '재인'님이 보내는 편지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항상 보고 싶고 그리워요.
올 때마다 묵묵히 할머니만 보고 갑니다.
살아계실 적에 작은 바람도 잘 잘 지키지 못했고 할머니 소원도 이루지 못해서 죄송해요.
올해는 하늘에서 보기 좋게 할머니의 바람 꼭 이루도록 노력할게요.
다음에 올 때는 혼자 오지 않을게요.
틈틈이 할머니 뵈러 자주 올게요.
설 연휴 음식 보면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즐겨 드시던 음식도 많았죠.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할머니 무척 보고 싶어요. 열심히 살아갈게요. 할머니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하는 할머니께 손녀 '황채은'님이 보내는 편지

할머니, 나 채은이야.
하늘에서 꼭 봐줬으면 해.
매일매일 할머니 생각할게.
나 할머니 되게 많이 사랑 하는데 할머니 그거 알고 간 거 맞지?
항상 내가 못되게 굴어도 잘해준 울 할머니 내가 너무 사랑해.
이젠 얼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게 너무 아쉽고 좀 그래.
다음번에도 올게. 나중에 봐.

사랑하는 할머니께 '환이'님이 보내는 편지

나의 어린 시절의 전부였던,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오랜만에 왔어. 자주 오지 못해 미안해. 자주 올게요.
할머니가 줬던 사랑 남들에게 잘 베풀며 살게.
요새 되는 일이 없어 우울했는데 할머니 보고 가니 좋다.
항상 사랑해, 우리 할머니.
하늘나라에선 아프지 말고 행복해.

사랑하는 할아버지 '홍예곤'님께 손녀 '소명'님이 보내는 편지

홍예곤 외할아버지께

외할아버지! 저 소명이에요.

단풍잎이 빨강, 노랑 예쁘게 물들었는데 외할아버지도 기쁘죠?

외할아버지도 천당 올라가셔서 빨강, 노랑 예쁜 단풍 많이 구경하시고,

여기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 거기서 꼭 이루세요!!

하늘공원에서 잘 지내세요.

- 손녀 소명

사랑하는 할머니 '김복례'님께 손녀 '다빈'님이 보내는 편지

To. 김복례 할머니 ♡

할머니, 이 제 볼 수도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할머니랑 함께한 추억을 생각하며 버틸게요.

할머니랑 똑 닮은 칼 발, 칼 손 볼 때마다 할머니가 생각날 것 같아요…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세요♡♡

할머니 가고 싶은 곳 이제 다 자유롭게 다니세요.

할머니, 많이 늦었지만 사랑해요 ♡♡♡

- 할머니의 첫 손녀, 다빈 올림

사랑하는 할머니 '임도연'님께 손녀 '지영'님이 보내는 편지

할머니, 저 지영이에요.
저랑 민아 선생님, 엄마, 삼촌, 왕생이 선생님들, 할머니 친구분들, 다연이 언니,
한승이, 그밖에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임도연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고 사랑해요.
진짜 가족들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맨날 밥투정도 했는데 할머니가 만든 김치가 먹고 싶고,
할머니랑 같이 먹고, 놀고, 티비 보고, 자고 싶어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할머니 '오안옥'님께 손녀 '아람'님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오안옥 할머니~♥

나 아람이야!

여기는 봄인데, 우리 할머니랑 작천정 놀러가고 했는데 같이 못 가니까 슬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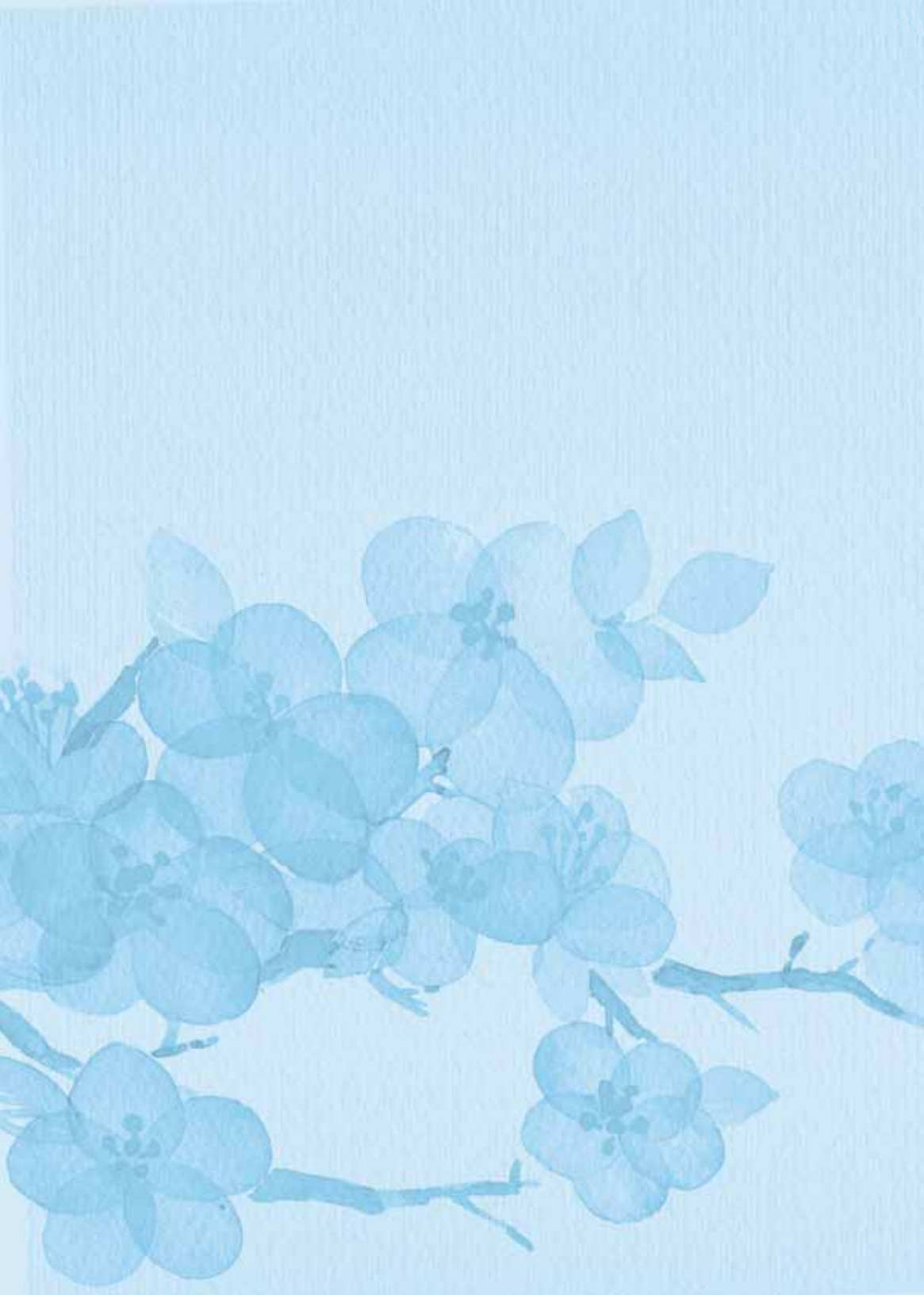
잘 있는 거지?

요새 꿈에 나와서 내가 일부러 더 자고 그런다? 몰랐지? 아픈 모습 말고 행복한 모습으로 나오면 더 좋은데… 한 번씩 그런 모습을 봐서 좋다가도 슬퍼져.

내가 너무 자주 못 와서 할머니 섭섭하겠다. 자주 오려고 알게!

할머니~ 늘 나랑 같이 있는 거 맞지? 할머니는 늘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할거야.

할머니, 사랑해. 진짜 너무너무 많이많이 사랑해♥



Chapter 05

내 짝꿍 형, 누나, 오빠, 동생아!

너와 내가 같은 길을 걸은 지 벌써 30년.
웃음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각본에 없는 이별을 하는구나.
부디 천국에서는 모든 행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 하늘편지 중에서 -

"

인간의 감정은 누군가를 만날 때와
헤어질 때 가장 순수하며, 가장 빛난다.

-장 폴 리히터(Jean Paul Richter) -

"

사랑하는 동생 '이선희'님께 언니 '이초희'님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내 동생 선희야, 오랜만에 널 보러왔어. 자주 못 와서 미안해!
오늘따라 밖에 날씨가 참 따뜻하고 좋구나!
곧 봄이라 그런가. 거기는 어때? 따뜻해?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 둘째 동생 빈자리가 너무 크다.
20년을 함께 했는데. 한 번씩은 네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더라.
내가 제일 많이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내 여동생 선희야.
편지를 쓰면서도 눈물이 나오네.
잘 지내고 있어. 다음에 또 올게. 사랑해!

사랑하는 동생 '이선희'님께 언니 '이초희'님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둘째동생 선희야,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어?
오랜만에 가족과 널 보러왔어. 자주 못 와서 미안해.
이제 여름이 다가온다. 거긴 어때? 거기도 덥지? 더위 싫은데.
나는 요즘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어. 더 좋은데 갈 수 있도록 도와줘.
항상 생각하는데 언니로서 못 해준 게 많아 미안한 마음뿐이다. 다음 생에도 자매로 만나자!
그리고 할아버지 만났어? 선희가 할아버지 잘 챙겨줘.
하늘나라에서 우리 가족들 잘되도록 지켜봐 줘. 다음에 또 올게.
사랑해 내 동생 선희야.

사랑하는 오빠 '유동안'님께 동생 '유다영'님이 보내는 편지

오빠 간지 벌써 1년이네. 늦게 와서 미안해.
우리가족은 잘 지내고 있어. 오빠도 잘 지내고 있지?
오빠 기제사 다가오면 백양사 절에서 제대로 지내줄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다음에 또 올게, 안녕.

사랑하는 동생 '김호기'님께 '김석기'님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내 동생 호기야, 우리는 칼바람 속에서도 모든 것을 헤쳐 나갔다.
네가 재대하고 새로운 각오를 갖고 출발하자고 무전여행을 떠났지.
둘이서 배낭을 메고 대운산 암자 밑에서 일박을 하며 미래를 꿈꾸었지.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쳐 하산하고 말았지.
대운산에서 남창까지 비를 맞으며 걸었지.
호기야, 너와 내가 같은 길을 걸은 지 벌써 30년.
웃음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각본에 없는 이별을 하는구나.
부디 천국에서는 모든 행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오빠 '황기현'님께 동생 '황춘옥(안나)'님이 보내는 편지

몹시도 추웠습니다.
입관하시던 날, 마지막 오빠의 얼굴과 가슴과 다리와 발을 쓰다듬으며 아쉬운 이별을 고했습니다.
추웠지만 맑았던 2017년 1월의 오빠와의 마지막 기억을 뒤로 하고 오늘 하늘공원에 왔습니다.
편히, 편안히 영면하시어요.
머지않은 날 우리 육남매가 모두 모이는 날까지 걱정 없고 미움 없고 아픔 없는 하늘나라에서 편안한 쉼 하시어요.
사랑하는 우리오빠!!!

사랑하는 동생에게 누나 '권금자'님이 보내는 편지

내 동생아!

어느 날 홀연히 한마디 인사도 없이 너는 하느님 곁으로 천사를 따라 떠나가 버렸구나!

남은 가족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결국 천사를 따라 하늘로 떠나버렸네.

쓸쓸히 살다가 또 혼자 쓸쓸히 병상에서 떠나 버렸네.

이 세상 살면서 누구보다 착했고, 네 것이란 거 하나 없이 살다가 또 가버렸네.

생전에 너에게 누나로서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정말 미안하고 미안하다.

누나의 불찰과 이 세상에서 겪은 모든 상처와 아픔 다 용서하고 잊어다오.

정말 미안하고 미안하다. 꼭 하늘나라에서 복을 누리거라.

사랑하는 언니 '진조'님께 동생 '진영'님이 보내는 편지

8월 16일 오늘 엄마 생일 전날이야, 오랜만에 왔지.
13일은 엄마아빠 결혼기념일, 5일은 아빠생일, 다 8월에 몰려있어, 언니야. 날짜 보고 알았다.
생일 선물은 내가 정해서 줬어. 우린 N분의 1이야, 알겠지? 우리 반띵한 거다?
요즘 어떻게 지내? 한 번씩 꿈에 나오기는 하는데 잠깐씩 나오고 내가 일찍 잠이 안 들어서 그런가…
계속 오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버리고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야 왔어, 미안해.
오늘 내일 엄마 생일이니까 선물 사러갔다가 건영이랑 같이 왔어.
꽃이 마감돼서 언니야가 좋아하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사왔다.
그리고 언니야가 싱가폴이랑 중국에서 사왔던 육포가 너무 먹고 싶고 기억나서 주문해서 먹었는데 언니야 생각이 넘나 많이 났어.
아프지 말고 항상 곁에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쁜 곳 좋은 곳 다 놀러 가고 구경하고 있어줘.
곧 만나, 언니야. 사랑해.
보고 싶은 진영이가

사랑하는 형 '신태묵'님께 동생 '신영묵'님이 보내는 편지

아무런 말없이 인사 한 마디 못 나눈 채 하늘편지 띄우는 장소에서 몇 자의 글로서 대화를 나눈 심정은 목메어 이렇게 적어 날리렵니다.

형님! 우리 6형제의 장남이시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맞잡이가 되시었는데 너무나 애처롭고 비통한 심정일 뿐입니다.

비단길 같이 곱고 온화한 성품.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남을 배려해주는 그 모습.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짧은 글이오나 멀고먼 이 길, 6형제의 셋째 동생이 하늘로 띄웁니다.

안녕히~~

사랑하는 동생 '유관근'님께 누나 '유이선'님이 보내는 편지

오늘도 어김없이 날짜는 가는구나.
안개 낀 산속을 헤집으며 오는 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곳의 하늘은 어떻니? 그냥 편안히 그곳에서 쉬거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떨구어 버리고 훨훨 날아서 다니렴.

사랑하는 동생 '김석기'님께 형 '김석우'님이 보내는 편지

석기야!

너 가고 처음 만난 추석이다.

더욱 생각나구나. 아버지, 엄마하고 잘 지낸다.

너 외로울까 아버님, 어머님도 네 곁에 모셨다.

온 가족 다 와 더욱 보고 싶구나.

석기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큰형이.

사랑하는 누나에게 동생 '영식'님이 보내는 편지

작은 누나
잘 지냈어? 나 1년 만에 쪽지 써보네.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았는데 할 용기가 안 났나봐.
누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거든.
그렇지만 고마운 마음이 더 크고 누나가 너무 많이 보고 싶어서 쪽지를 적어.
시간이 지나니 그때보단 괜찮아지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누나가 많이 그립고,
또 혼자 한 번씩은 울고 그래.
그래도 누나, 씩씩하게 잘 지낼게.
누나도 거기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데도 많이 다니고 해!
할아버지한테 맛있는 것도 좀 사달라고 하고.
잘 지내, 누나. 또 올게. 사랑해.

사랑하는 누나 '새미'님에게 동생이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새미 누나♡
누나, 8일에 못 올 것 같아서 지금 들러.
나 춘천으로 팀 옮겼어. 지켜보고 있는 거지?
경기 시작할 때 맨날 누나 소환하려고 해. 나 좀 지켜봐달라고.
부모님은 잘 계셔. 내가 아직 용돈드릴 능력까진 안 되는데 속은 안 썩이려고 노력하고 있어.
좋은 데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꿈에 좀 나와 주고!

사랑하는 동생 '안종민'님에게 누나가 보내는 편지

안종민♡♡

큰누나 왔다.

너무 좋은 소식 가지고 왔어. 이제 너 삼촌 된다!

다음 주에 심장소리 들어야 확실하겠지만, 네가 보내준 아기천사임이 틀림없다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음에 올 때 더 좋은 소식으로 올게. 고맙고 사랑해♡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늘 함께 한다는 것 잊지 말자. 우리 '티거' 잘 지켜줘.

하나뿐인 울 막둥이 사랑해.

사랑하는 동생 '미자'님에게 언니 '민주'님이 보내는 편지

이쁜 내 동생아
미안해, 언니가 낯선이 데려와서…
사랑하는 사람이애, 또 올게.
사랑해, 내 동생~

민주 동생 미자씨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랬죠?
언니의 낯선 사람이 아닌,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 하늘에서 지켜봐주세요. 곧 처제라 부를게요.
- 예비 형부가

사랑하는 오빠에게 동생이 보내는 편지

오빠,

오늘 엄마랑 아빠랑 희야 이모랑 휴가라서 보러 왔어. 어제는 할머니댁 가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보고 왔어.

잘 지내지? 많이 보고 싶어.

예쁜 꽃 사서 가져오고 싶었는데 급하게 준비한다고 예쁜 건 못 샀어, 미안해.

오빠한테 자랑스러운 동생이 되도록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아빠한테 효도할게!

예쁘게 지켜봐줘.

미안하고 사랑해, 많이 보고 싶어♡!

Chapter 06

늘 함께한 벗

이제 우리 추억은 더 못 만들지만
항상 내 마음 속에서는 널 생각하고 있을게.

- 하늘편지 중에서 -

"

작별 인사에 낙담하지 말라. 재회에 앞서 작별은 필요하다.
그리고 친구라면 잠시 혹은 오랜 뒤라도 꼭 재회하게 될 터이니.

- 리처드 바크(Richard Bach) -

"

사랑하는 친구 '전재욱'님께 '김영란'님이 보내는 편지

내 친구 재욱아! 이제는 먼 길을 떠나버린 그리운 친구야!
함께 한 30년의 세월이 이토록 짧게만 느껴지는 건 왜일까?
짧지 않은 시간 친구와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고,
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부디 그곳에서는 고통 없이 행복하면 좋겠고 영면했으면 한다.
거기서 이승의 친구들 많이 돌봐주고 지켜줘.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이승에서 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함께 하자꾸나.
잘 가. 내 친구 재욱아.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추억할게.
친구야 사랑해.

사랑하는 친구 '설영진'님께 '심미리'님이 보내는 편지

영진아, 안녕? 나 미리야. 벌써 많이 보고 싶다.
내 친구 영진아, 자주 찾아갈게.
우리 영진이 거기서도 지금처럼 늘 그랬듯이
잘 까불고 엉뚱한 짓 하면서 웃으면서 잘 있어.
사랑한다, 친구야.
너보다 조금 더 이쁜 미리가

사랑하는 상사 '이창희 계장'님께 부하 '권휘건'님이 보내는 편지

(세월호 참사 수습중 순직)

세월호 사건이 벌써 2년 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게 작년 2월이니 다시온건 1년 반 만이네요.
상경해서 살며 경황이 없으니 날짜도 잊어버립니다.
막상 연휴에 내려오니 큰 지진 때문에 조금 늦게 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짧게 씁니다만... 안타깝지요.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찾아뵙습니다.

사랑하는 언니 '김진조'님께 동생 '건영'님이 보내는 편지

진조언니에게,

한두 달만 인가 봐. 엄청 오랜만이지? 많이 보고 싶었어.

요즘 뭐 하고 지내? 천국은 좋아? 거기 TV는 엄청 크겠지? 그럼 '도깨비'도 보겠네. 공유와 이동욱 멋있어.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가 많아서 언니가 더 보고 싶다. 같이 옆에 앉아 귤도 먹고.

내가 페북 타임라인 쓰는 건 알겠지? 앞으로도 많이 쓸 테니까 꼭 읽어줘.

나는 언니 냄새가 그립고, 목소리가 그립고, 얼굴이 그립다. 다 그립다.

언니도 그랬으면 좋겠다. 언니도 '도깨비' 내용처럼 기억 없애주는 차를 마시고 천국 갔어? 마시고 않고 간 거면 좋겠다. 나도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갈게.

우리 그때 꼭 만나자.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언니와 헤어진 지도 벌써 7개월 되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언니는 더 예뻐졌겠지? 2016년 가기 전에 또 올게. 너무너무 보고 싶다. 사랑해! 크리스마스에 집에 와서 진영언니 생일 축하해줘.

내 소원

1. 꿈에 나오기 2. 아프지 말기

3. 항상 옆에 있어 주기 4. 나 잊지 말기

사랑하는 친구에게 '성가희'님이 보내는 편지

이쁜 내 싸룽~ 하이룽~ 내다! 이쁜 가쓰나, 잘 지내고 있지?
보고 싶은데 우찌 얼굴 한번 안보여주냐! 자기 전에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생각하고 자면 꿈에 나온다는 소리 믿고 있는데!
오늘은 꼭 보여줘~ 보고 싶으니까.
천국에 가있지? 도착 잘 했지? 묻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말도 많은데! 꿈에 나와서 수다 좀 떨자~~
사랑하는 내 친구,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나도 언제가 몇 십 년 후면 그때 다시 만나서 욕도 하고 잔소리도 해줘!
그립거든 네 목소리!
다음에 다시 또 올게 항상 기억하고 사랑하고 내 마음 한편에 있어.
사랑해 보고 싶다,
내 친구!!

사랑하는 '나의 여신님'에게 '웅이'님이 보내는 편지

언제나 그렇듯 첫 글자 쓰는 게 제일 힘이 드네…잘 지내고 있어요? 자기는 그 위에서 나 잘 보고 있지? 자기가 보기에 질투 날만큼 나 잘 살고 있어 보여? 나는 자기 못 보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우선 내 꿈에 나와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제, 그제, 내가 면접 때문에 긴장할까봐 나와준 거지?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너무 고마워.진짜 바보 같다 나? 자기한테 결국 의지하고 있네.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힘들면 결국 또 자기한테 의지하려고 하네요. 너는 내게 그런 사람이야.. 없으면 안 되는데 너무 보고 싶다., 꿈에서 봤을 때 너무 예쁘더라.. 정말 천사 같았어요. 너무 예뻤어. 그리고 아픈 곳도 없어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꿈에서 말 못했지만.. 정말 사랑해요.. 아직도 당신의 웃음, 손길, 모든 것이 내게 가득해.. 너무 보고 싶어요..사랑해요.. 오늘 자기 생일이잖아! 나 기억한다. 꼭..자기 생일 때면 돈이 부족해서 1년간 모은 동전 다 바꿔서 선물 사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필요한 거 없어? 맨날 이때쯤 되면 내가 묻는 말인데..그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삶이 바쁜 것도 아닌데 찾아오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 놓고선 힘드니까 자기한테 기대려고만 하니.. 너무 미안하네. 그래도 자기는 나보다 잘 살고 있는 듯이 꿈에 나타나 너무 좋았어요. 머리 다시 아프진 않지? 그곳에선 제발 아프지 마요. 내가 끝까지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해요. 자기 없이 보내는 기념일 중, 두 번째 맞이하는 것 중 첨이다.나는 크게 성숙하지 못했나봐. 여전히 자기가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해. 여기까지 쓸게요. 생일 축하해요. 나만의 아름다운 여신님.

사랑하는 '국화'님께 '병자'님이 보내는 편지

널 많이 본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나 우울할 때나 힘들 때 한 번씩 널 찾아오게 된다.
나 참 못됐다, 그치?
첨엔 너의 빈자리를 내가 대신 채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너도 하늘나라에서 고마워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봐.
오늘은 빼빼로 데이래, 가래떡을 대신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
선물 주고받으며 다들 행복해 하는 게..
내 배가 아픈 건지 이렇게 또 힘이 들어서 바람 쐬러 왔다간다~
조만간 또 올게. 잘 있어~

사랑하는 친구 '조은주'님께 '서보배'님이 보내는 편지

안녕? 은주야? 거긴 어때.... 여긴 많이 춥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웃고 떠들고~ 울고 참 많은 추억들이 내겐 선물처럼 남아있다.
그래서 고마워. 곁엔 없지만 마음속 머릿속에서 늘 함께 할 수 있음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할 정도로 애석한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네? 언제나 웃는 게 예뻤던 너는 지금도 웃으며 행복했으면 좋았을걸...
거기선 아프지 않게 미소 지으며 지내고 있을 것 같아.
반려동물은 죽으면 주인을 기다린다고들 하잖아. 니가 그렇게 좋아하던 두리가 곁에서 떠났을 때 너무 슬퍼하던 니 모습을 보며 함께 울었었지. 우리 은주~ 두리랑 둘이 만나서 실컷 놀고 있겠네? 행복하게 놀고 웃고 즐겁게 기다리고 있어!
부모님 걱정은 하지 말고~
어머님은 널 위해 열심히 싸우고 계셔.
곁에서 응원 해드리고 니 몫까지 챙겨드리도록 노력할게.
예쁜 은주야. 내 친구 은주야. 사랑해

사랑하는 동생 '영'님께 언니 '조소민'님이 보내는 편지

영아, 나 민이 언니야. 하늘나라는 좀 어때?
여기는 아직까지 너와의 추억에서 벗어나질 못 하고 있어.
난 입관을 봐도, 네가 화장된 모습을 봐도 아직 믿어지지가 않아.
거긴 좀 어때? 날씨는 따뜻하고 살기 편해?
비록 우리가 함께 한 시간은 짧지만, 매일매일 보고 같이 다녔으니 마음이 아프더라.
내 쌍둥이 같은 영아. 이제 힘든 일도 없길 바라며
아무 생각하지 말고 좋은 곳 가서 편히 쉬었으면 해.
사랑한다. 영아. 평생 잊지 않을게.

사랑하는 친구 '김나영'님께 '지예지'님이 보내는 편지

나영아, 예지야. 네가 없는 나날들이 너무 힘들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다.
네가 이걸 볼 수만 있다면 좋겠다.
우리가 잘 챙기고 있으니 혜경이 걱정은 하지 마.
노래 가사에도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으니"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보다 높은 곳에 있으니 우리 함께 있는 걸로 하자.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어딜 가나 네가 있었는데 이젠 없구나.
정말 많이 보고 싶다. 인생의 반을 너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
거기선 더 이상 힘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해. 알았지??
평생을 기억하고 살 거야. 거기서 잘 지켜봐 줘.
영원히 사랑해, 나영아.

사랑하는 동생 '김나영'님께 언니 '박정은'님이 보내는 편지

나영~~오늘은 7월 첫날이야. 벌써 2017년 반이 지나갔네!
여기 도착하자마자 비가 오네ㅜㅜ 우리 나영이 습한 거 싫어하는데ㅜㅜ
어젯밤에도 네가 너무 보고 싶더라. 우리 신례랑 이수랑 너랑 나랑 웰빙 가서 술이랑 고기 먹은 날 기억나?? 그때 찍은 동영상 보는데 너무 예뻐서 계속 돌려 봤어..ㅎㅎ 언양에서 어딜 가든 너랑 함께 한 추억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나 혼자 언양을 돌아다니기 아직까지는 너무 버거워. 잠시라도 밖에 나오라고 하면 언제든 나 만나러 와주곤 했는데... 진짜 너무 허전해서 미칠 것만 같아.
나영아. 우리 나영이. 속도 여리고 겁도 많은 우리 나영이 거기서 항상 그 누구보다 이쁨 받고 지내고 있어야 해~ 네가 떠나고 잠을 설치는데 거기 적응하고 여유가 생기면 얼굴 좀 보여줘!! 기다리고 있을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게.
우리 나영이 해본 것보다 못 해본 게 더 많을 텐데...
이렇게 먼저 가서 너무 밉다. 항상 혜경이랑 우리 셋이 함께 하기로 해놓구..ㅠㅠ
언니가 많이 미안하고 또 미안해.
우리 돼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잘 놀고 있어.
너무 늦지 않게 네 곁으로 갈 테니 그때 웃으면서 안아줘. 사랑해 나영아.

사랑하는 '김나영'님께 '정혜경 '님이 보내는 편지

영아~ 나 혜경이야~ 오늘도 너 보러 왔다.
매일 오고 싶어. 실습하고 시간 내서 자주자주 올게. 나 이제 안 울기로 했어.
네가 원하지 않을 거 알아. 그래서 네 앞에서만큼은 웃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아직 네가 머무는 세상에서 널 애타게 찾고 또 찾아.
거짓말 같아... 네 모습도...
웃는 얼굴, 소리 나를 잡아줬던 손까지 이렇게나 생생해. 영원히 가고 싶다.
세월이 흐를수록 네 흔적이 없어진다면 더한 고통이 있을까.
너무 보고 싶어. 네가 가던 마지막 날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왜 널 한 번 더 보려 하지 않았을까. 네 말대로 나도 널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게 하는 거 같아. 거기선 힘든 거, 슬픈 거 다 버려두고 오직 행복만 느끼길 바라.
내일랑 내일 또 올게.
내가 늙어서 주름이 자글자글해도 만나면 예뻐해 줘.
사랑해~

사랑하는 친구 '유빈'님께 '김은지'님이 보내는 편지

유빈아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또 오게 되었네 .

너는 지금 여기서 나가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잘 놀고 있겠지?

우리 할머니 봤어? 잘 챙겨드려 몸도 약하시고 외소하시니까 .

이렇게 또 한 번 아픈 생각이 나는구나.

너는 잘 있니? 날이 많이 풀렸지. 이제 봄이야.

겨울옷 버리고 얇고 이쁜 봄옷 입고 다녀.

내가 일 쉬는 날 찾아갈게. 자주 못 찾아가서 미안하다 야 ㅎㅎㅎㅎ

진짜 많이 보고 싶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형 '김민준'님이 보내는 편지

안녕.

형은 오늘 흥룡사에 다녀왔어.

거기는 어때?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마다 널 보러 온단다. 에휴…

자주 올게. 너 보러가기 전에 이 편지 적고 보고 가려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따뜻하게 있어야 한다, 알았지?

다음에 봐. 안녕.

민준이형이 -

사랑하는 친구 '이준기'님에게 보내는 편지

준기야!

오랜만에 온 것 같네.

요즘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친구 너에게 소홀히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구나…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다. 옛날 생각나지? 항상 더우면 계곡에 가고 했었는데…

참! 내가 아파했던 시간들 견디고 나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친구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다. 다음에 같이 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길…

늘 그립고 보고 싶다, 내 친구 이준기.

사랑하는 친구 '신현아'님께 '민지'님이 보내는 편지

♡하는 현아에게
현아야, 잘 지내지? 이렇게라도 얼굴 보고 가니 너무 좋다.
나 결혼해. 네가 축가 불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잘살게, 거기서도 지켜봐줘.
또 보러 올 테니 거기서는 많이 웃으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길 빌게♥
너무너무 보고 싶다, 신현아.
- 이쁜 민지

사랑하는 동생 '김병주'님에게 형이 보내는 편지

김병주에게 적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병주'라는 이름을 듣거나 닮은 사람을 보면
'오랜만에 연락해야지.'하며 동시에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희미해져가는 기억에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내년에 또 만나요.

사랑하는 친구 '현진'님에게 '문다애'님이 보내는 편지

현진아 내가 오랜만에 네 얼굴을 보러 왔어. 너무 오랜만이라서 네가 서운할 수도 있겠다.
안 울려고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네 아버지 글을 보자마자 내 다짐은 다 무너져 내렸어. 항상 옆에서 웃어주고 있어줘서 아직도 빈자리가 너무 크다.
네가 서운할정도로 잘 지내고 처음처럼 찾아오지도 못하지만, 우리 애들이 널 생각하는 마음이나 널 그리워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 위에 우리 삼촌도 얼마 전에 갔는데… 항상 언젠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떠나보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위에서 너무 잘 지낸다는 듯이 마냥 꿈에도 안 나오고 그러면 서운해 ~~ 이랬든 저랬든 현진아, 난 너 못 잊어. 아직도 너란 존재가 크게 느껴진다. 물론 예전보다야 많이 잊었지만 너랑 있었던 일들 추억들 생각하면 보고 싶네. 진짜 착하고 천사들만 먼저 데려간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다.
삼촌도 너도 고현도, 다 너무 멋지고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뭐가 아쉬워서 먼저 데려갔는지. 현진아 너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다.
보고 싶다고 밖에 못하는 내가 바보 같을 뿐이야.
우리 위에서 만나면 행복하게 힘들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그렇게 지내자 꼭 그렇게 지내자 현진아 사랑해

사랑하는 친구 '준'님에게 '민재'님이 보내는 편지

준아, 나 민재다.
마지막 보내기가 아쉬워 이렇게 적는다.
난 네가 게임은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각난다. 항상 연락 와서 서로 웃기도하고 울기도하고 많은 일이 있었네. 이제 우리 추억은 더 못 만들지만 항상 내 마음 속에서는 널 생각하고 있을게. 앞으로 네 몫까지 네가 부러울 만큼 살 테니 너도 잘 살아라.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갈게.
친구, 사랑한다.

사랑하는 친구 '학준'님에게 '화정'님이 보내는 편지

학준아,
우리가 이 작은 종이에 마음을 담아 전하려고 하니
종이가 너무 작아 표현을 다 못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돼서 이 자리에 너에게 종이로 통해 할 말을 적는다.
아직까지 실감이 나질 않고 아직도 너랑 장난치고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그리 급해서 먼저 가버린 거야.
주위에 너 기다리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위에 가서 좋은 사람, 좋은 시간들로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잊지 않을게, 꼭!
보고 싶을 거야. 항상 잘 지내고 매년 보러올게. 고마웠어!
아, 그리고 학민이 우리가 잘 챙길게. 걱정 마~

사랑하는 '지혜'님에게 보내는 편지

날이 덥다. 그 와중에도 오늘은 날이 조금 시원하다. 너는 겨울에 떠났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네 친구들도 너를 많이 그리워한다. 너는 떠날 때에도 왁자지껄하게 떠나더니… 많은 사람들이 너를 좋아했나보다.

잊을만하면 오는 덕에 나도 쉽사리는 못 잊게 되는구나.

지혜야, 근심과 걱정 없이 지내라. 여기는 이상 없다.

온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왔는지 모르겠다. 분명 나는 통도사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 발길이 향하더라. 질리지 않으려나 모르겠다. 그래도 오는 게 어디니? 나름 국밥도 같이 먹은 사이가 아니었나?

다음에 또 오겠다. 잘 지내라.

사랑하는 형 '용휘'님에게 동생 '동희'님이 보내는 편지

형님,

소주 한 잔 제대로 못했던 게 한이 되어버리네.

형이 나 생각해주던 만큼 동생으로서 도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아쉽다.

누구보다 오래 살 거라 하더니 이렇게 되어 너무 속상하다.

속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었던 형님을 이제 못 본다는 게 너무 씁쓸하다.

형님 집에서 치킨에 소주 먹을 때가 그립다.

간간히 보러 올게. 위에선 술 좀 줄이고 웃는 모습으로 보자.

용휘 형, 사랑한다. 좋은 곳으로 가면 좋겠다.

- 동희가

Chapter 07

사이좋은 우리 가족

나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출수가 없어 목 놓아 불러보니 어디선가
화답해 주시는 바람소리가 대신 전해옵니다.

- 하늘편지 중에서 -

“

이별의 아픔 속에서만
사랑의 깊이를 알게된다.

- 조지 엘리엇(George Eliot) -

”

사랑하는 형님 '유태형'님께 동서 '오은희'님이 보내는 편지

형님, 아무런 말도 한마디 없이 형님 혼자 훌쩍 떠나가시고 나니 진짜 아쉽고 실감이 나지 않아요.
형님, 이제 모든 마지막 짐 다 내려놓으시고, 이승에서 못다 한 일 저승에서나마 아프지 말고 조금이라고 편하게 생활하세요.
아주버님, 아름, 은아, 박 서방, 진식 모두 걱정하지 마시고 형님 부처님 전에서 편안하게 인도되시기를 바랄게요.

사랑하는 조카 '유다연'님에게 큰아버지 '유장현'님이 보내는 편지

나의 첫 조카 다연에게,

다연아 잘 갔어? 다연과 만나서 이별까지 3년이란 시간뿐 이었네. 몹시 짧고도 짧은 시간이다, 그렇지?

다연이 세상에 태어난 날 큰 아빠는 한없이 기뻤단다. 만지기도 아까웠고, 바라보는 것조차 말이야.

나에게 큰 기쁨이자 행복을 안겨 준 다연을 너무나 짧은 시간에 보내게 되어 마음이 무척 아프단다. 세상에 태어나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아팠지? 다연아 고생했어. 여린 몸으로 버틴 것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다.

다연에게 큰 아빠가 해준 게 없어 미안해. 안아 주지도 못했고. 다연이 떠난 뒤에야 후회가 밀려와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연아 미안해.

하늘에서는 아기천사가 되었으리라 믿어.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울지도 말고 늘 행복하기를 기도할게. 짧은 만남이었지만 다연이 덕에 많이 웃을 수 있었어. 고마워. 잘 가 다연아! 사랑했다!

사랑하는 고모께 조카 '장윤정'님이 보내는 편지

고모~~ 잘 지내고 있나?

우리 고모 하늘나라 떠난 지 벌써 일 년이네.

조금도 잊혀 지지 않고 매일 생각나고, 보고 싶다.

고모 아플 때 잘 못 챙겨준 게 두고두고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ㅠㅠ 내가..너무 몰랐다 나이만 먹었지 철이 너무 없어가지구..ㅠㅠ

나 지금 고모 보러왔어. 고모가 있는 그곳에선 꼭꼭 행복하길 바라.

또 올께~~

사랑하는 큰할아버지께 '예지'님이 보내는 편지

큰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덕분에 잘 자라고 있는 예지에요.
전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실지는 몰라서… 별로 할 이야기는 없지만…
부디 그곳에서 편히 계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솔지'님이 보내는 편지

할머니, 아빠, 삼촌아! 잘 지내고 있지?

나 솔지야. 오늘 할아버지 가시는 날이라서 왔어. 얼마 전에 꿈에 나와서 다 같이 밥 먹는 꿈꿨는데 좋아보였어.

아빠, 할아버지랑 싸우지 말고 할아버지는 아빠 있는 곳으로 잘 데려가줘. 할머니는 아빠가 잘 데려갔을 거 같아.

사랑하는 우리아빠, 할머니, 대석이 삼촌, 너무 보고 싶다. 할아버지랑 위에서 행복해.

우리아빠, 사랑하는 우리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자주 찾아뵙지 못해 미안합니다. 잘 지내세용

아빠, 삼촌, 할아버지 잘 모시고 가줍숑~

사랑하는 삼촌 '김대식'님께 조카 '김민경'님이 보내는 편지

고무신 한 짝, 낡은 시계와 약, 오래된 옷가지들…
영정 사진 앞에 놓은 이 물건들을 보니 삼촌이 병원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힘들게 보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삼촌은 잘생긴 얼굴에 잘 웃는 어린 조카 간식 잘 사주는 마음씨 좋은 삼촌이었습니다. 우리 삼촌 마음이 너무 고왔나, 병이 생겼다 했습니다.
삼촌 기억나? 나 회사 들어가고 가족들과 같이 보러간 거 그게 마지막 삼촌 모습이었네. 삼촌은 늘 똑같아. 나 어릴 적과 커서 봤을 때 우리 막내삼촌. 멀어서 바빠서 못 찾아 갔다는 핑계는 미안해. 그래도 삼촌은 영정사진도 멋있다.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거기 가서는 웃으면서 할아버지도 뵙고, 예쁜 숙모 만나고, 여기서 하지 못했던 일들 맘껏 하길 바랄게. 편하게 좋은 곳 가서 쉬어.
식이 삼촌 항상 지켜보면서 좋은 길로 인도해줘.
이제 진짜 안녕.

사랑하는 이모부께 조카 '이희승'님이 보내는 편지

아침부터 울산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아마 이모부의 이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리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했는데, 이제야 울산에 내려왔네요.
예전에 저희 집에 일이 생기면 많이 도와주시던 이모부였는데... 저희 아버지 대신에 제가 보답을 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늘공원에서 이렇게 편지 쓰는 일뿐이 없네요.
오늘따라 저를 만나면 따뜻한 손으로 꽉 잡아주시면서 악수하시던 이모부가 그립네요.
부디 병마 없는 세상에서 즐겁게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만나면 안부 전해주세요.
저도 종종 울산에 내려와서 이모부 안부 묻겠습니다.
아마 울산에서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주버님 '신태묵'님께 제수 '전금순'님이 보내는 편지

보고 싶은 시 아주버님!

그윽한 차 한 잔 타 주시며 행복한 미소를 보내셨지요?

구름 한 조각 이불 삼으시고 풀벌레 울음소리에 자장가 삼아 고이 잠드신 모습은 먼저가신 부모님 따라 간다는 소리 없는 대답, 저는 벌써 읽고 또 읽었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저를 반기시던 행동과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출수가 없어 목 놓아 불러보니 어디선가 화답해 주시는 바람소리가 대신 전해옵니다.

부디 저 세상에서는 고통이 없는 편안한 잠 주무소서.....

사랑하는 형님께 동서가 보내는 편지

형님,

어머님 생신이라 울산에서 점심 한 그릇 하고 모두들 여기에 형님 뵈러 왔네요.

늘 어머니는 형님을 가슴에 묻고 계시나 봐요.

형님, 늘 가슴 깊이 살아계시는 듯해요. 보고 싶네요.

우리 가족 모두 잘 지켜봐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형부께 처제가 보내는 편지

형부,
늘 즐거웠는데 중간에 잘못이 있어 뜸하게 지낸 것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되었으니,
형부도 아프지 않는 곳으로 가셔서 다 내려놓고 행복하세요.
가족도 걱정 말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이모할머니 '이계녀'님께 손자 '준혁'님이 보내는 편지

이모할머님, 안녕하십니까? 준혁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매번 올 때마다 날씨가 좋아서 저도 기분이 매우 좋아요. 어렸을 적 할머님께서 해준 따뜻한 밥이 생각나요. 보고 싶습니다.
항상 할머님께 멋있고, 잘 큰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못 보여줘서 너무나 아쉬워요.
저 그리고 3월 6일 자격증 필기 시험 쳐서 합격했어요. 4월 16일 실기시험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성공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잘 계세요. 사랑합니다.

Chapter 08

하늘나무 추모열매

그가 없는 이 땅 아래 쓸쓸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기다려라. 충분히 즐기고,
따사로운 날 널 만나러 갈 테니.

- 하늘편지 중에서 -

“

만나고, 알고, 사랑하고, 이별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된 슬픈 이야기다.

- S. T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 -

”

눈을 감으면 너무 생생한데 막상 여기 와서 보면 또 다 꿈만 같아.
안 믿겨, 하나도···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꼭 취직할게. 엄마 있을 때 못 이뤘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하고 살았는데···
엄마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기뻐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
열심히 살게. 지켜봐줘.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엄마♡

엄마,
요즘 왜 꿈에 잘 안나와줘?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혹시 나보다 더 엄마의 힘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못 오고 있는 거야?
그런 거면 기다리고 있을게.
근데, 나도 힘들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그러니까 빨리 내 꿈에도 와줘. 꿈에서 꼭 안아주고, 손잡아줘.
엄마, 너무 보고 싶어. 너무 그리워.
많이 미안하고 사랑해♡
다음 주에 또 올게. 아프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오늘은 엄마를 떠나보내고 맞이하는 두 번째 생일이네.
오늘은 다들 시간 내서 모여서 외식하고, 케이크 먹고,
"축하한다, 사랑한다."는 말들로 행복해야할 날인데. 그치, 엄마?
하늘에서 우리 다 지켜봐주고 있지?
엄마, 생일 축하하고 너무 사랑해. 많이 보고 싶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마지막 본 일요일에 잘해드리지 못하고 피곤하다고 건성으로 대답해서
죄송해요. 애교 없는 손녀라.
더욱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를 하게 되네요.
엄마, 할머니 잘 보살필게요.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 잘 지켜봐주세요♡
– 손녀 주연

잘 지내지?
요새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자주 나네.
바쁘고 넋이 나가 있을 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나봐.
어머님께 아직 너를 친구들이 많이 기억해주고 찾아와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맘이 놓인다.
네가 곁에서 어머님 잘 보살펴 드려야해.

사랑하는 울 진조♥
내 친구 조야, 잘 지내고 있어? 얼마 전 네 생일에 애들이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이제야 오네. 그래도 내 맘 알지? ^^
오늘 건영이 생일파티 하려구! 울 진조랑 건영이 모두 생일 축하해!!!
여긴 비 엄청 오는데 거긴 괜찮아? 보고 싶다, 울 진조.
얼마 전에 꿈에 찾아와줘서 너무 기뻤어. 자주보자, 우리.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보고 싶은 김진조, 오늘도 사랑한다!!

너무 오랜만에 왔네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엄마 만나러 오는 횟수가 줄어들어 죄송합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은 엄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우리 아빠!
우리가족들의 변화 보고 계시죠?
우리 4남매 행복하게 열심히 잘살고 엄마 잘 모시며 살게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 계셨을 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힘든 일도 하지 말고
걱정 없이 흐뭇하게 저희 지켜봐주세요.
이제야 더욱 그리워하고 미안해하는 큰딸 용서하세요.
정말 잘 살게요~♡
사랑해요, 우리 아빠!

세준아, 오랜만이지~
규빈이 형 여자친구 유빈이 누나야 ㅎ
저번에 편지로 인사 했는데 기억나? 잘 지내고 있지??
올 때 네가 좋아하는 음료수 사오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ㅠㅠ
오늘은 인사만 하고 다음에 올 때 두 개 사올게! 꼭!!
요새 규빈이 형은 치킨 장사 때문에 피곤해 죽겠다고 해, 맨날.
그래도 둘이 열심히 돈 모아서 결혼하기로 했어!! 축하해줄 거지?
너랑 직접 본적은 없지만 오빠한테 얘길 많이 들어서 그런지 왠지 익숙한 것 같아.
우리가 언젠가 만나는 날이 온다면 더 많은 얘기 얼굴 보고 하자!
조만간 또 올게, 그동안 잘 지내!!

언니야, 23번째 생일 축하해!!
내가 언니야 나이 되니까 좀 이상하다. 빈자리도 많이 느끼고.
엄마 아빠도 언니야가 보고 싶은가봐. 매일 우는 것 같아. 나도 많이 보고 싶다.
하늘나라에서 생일파티 하고 있겠지?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언니야 친구들도 왔더라.

석민수(아빠)에게
아빠 되게 오랜만이네. 편지는 2016년 2월에 쓰고 올 때마다 한 번도 안 썼네.
오늘이 두 번째네.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고 한 번 못해주고
아버지라고 한 번 못 불러본 게 미안해. 맨날 돈만 달라고 하고, 되게 못됐다,
내가 봐도.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한테 잘해야지 라고 생각은 많이 했는데.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되더라. 초반에 며칠 잘하다가 평소처럼 집에 늦게 가고 외박도
자주하고 사고치고 다니고 그렇게 고등학교 올라와서 사고도 치고 대들기도 하고
엄마한테 잘해준 거 하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2학개 때부터 다시 공부해서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아! 아빠가 인물값 좀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예쁜 여자 친구도 만났어.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 보려고.
진짜 열심히 살아서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지금 여친이랑 오래 만나서
가정도 예쁘게 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할 거야.
아빠, 사랑해요. 진짜 다시 보고 싶어요.
보면 사랑한다고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 진원이가

사랑하는 외할아버지
평소에 더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클 때까지 곁에서 있어주셔서 어찌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편안하게 쉬시면 좋겠습니다.
– 외손자 정준영

오빠, 남자친구 군대 간다는데 오빠가 꿈에 나와서 미래 좀 알려줘.
그때는 정말 달라지고 열심히 살고 많이 달라지는지··· 오빠 생각도 궁금하고!
그일 연속으로 보니까 좋지? 나도 좋아.
28일에 군대 들어가야 해서 얘 먼저 보내고 오빠 보러올 것 같아. 이해 좀 해줘용.
내가 준비하는 일도 잘되게 해주고, 남자친구도 군대 건강히 다녀올 수 있게 해줘.
아빠가 너무 너무 괴롭혀. 아롱이가 있어서 좋기도 한데, 알다시피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강아지 때문에라도 아빠도 좀 달라지게 도와주면 좋겠다.
오빠도 물론 잘 지내고 있지? 나는 오빠 걱정 안한다! 보고 싶기만 하지. 또 올게~

아빠~
사랑하는 큰딸 왔어요~!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아빠는 별일 없이 잘 지내죠? 나는 별이 없이 무사해요.
아빠랑 어릴 때 사진 보면서 며칠 전에는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그래도 씩씩하게 잘 지낼 거예요.
아빠가 좋아하는 꽃도 사왔어요 아빠가 좋아하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TV 보다가 자식 원망하는 부모 없다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아빠한테 죄송한 것도 많고 나쁘게 한 투성이인데···
그래도 항상 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아빠 많이 사랑해요.
앞으로도 우리가족 안아주고 지켜봐주세요. 사랑해~♡
– 사랑하는 큰딸 선민 올림

할아버지
저는요, 할머니가 싫어요. 우는 모습은 더 싫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울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불쌍하대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할아버지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불쌍해지는 거다."라고 했어요. 잘했죠?
어제 음식은 잘 드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승언입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엄마가 정성껏 차린 미역국 잘 드셨지요?
이제 팔순이신데 너무 아쉽고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항상 가족을 위해 많이 애쓰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잊지 않고 잘 살게요, 아버지!

안녕, 병주야!!
오랜만이야. 올해는 내가 내일 일이 있어서 하루 일찍 왔어. 대신 이번엔 우르르 왔다! 미주, 주영, 지환, 수원, 지희 5명이서 왔다. 짱 반갑지? 빨리 잘했다고 칭찬해줘.병주야,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혹시나 오해할까봐 말하지만 난 네 생일도 안 잊고 항상 축하하고 있다! 표현할 수단이 없어서 섭섭해 할까봐···
하여튼! 우리들은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문득 네가 생각날 때가 있는데
생각할 때마다 못 해준 것만 떠올라서 항상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성숙했더라면 그런 게 덜했을까···올 때 마다 얘기하지만 미안해.
물론 너는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쯤 꿈에 나와서 네 생각을 얘기해주는 건 어때? 네 생활도 궁금하고.
내년에 또 올게, 또 보자!
– 지희

장모님!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아직도 가족들 걱정하고 계시진 않으시죠?
이제 맘 편하게 쉬세요. 산 사람들은 알아서 잘 삽니다.
미정이만은 제가 잘 살 수 있게 잘 챙기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하늘나라에서는 맘 편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 셋째 사위 성용 올림

사랑하는 영호씨~ 작은딸 예삐 왔어. 한동안 못 왔는데 보고 싶었지?
난 그동안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한 것 같아. 아빠도 잘 지냈지?
어젯밤에 밥은 많이 먹었어? 아빠 보러 많이들 오셨더라. 인기쟁이야~
우리 아빠! 많이 보고 싶고 내가 많이 사랑해. 꿈에 나오면 안 좋다던데
나는 좀 보고 싶은데··· 아빠가 안 나오니까 그만큼 잘 지내고 있는 거겠지?
사랑해, 보고 싶어.다음에 또 올게. 잘 지내고 있어. 많이많이 보고 싶어. 사랑해♡
– 예삐 수민이가

엄마, 오늘은 혼자 왔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고민도 많고···
뭐가 그리 많고 생각들이 나는지 나도 모르겠네. 이럴 때 엄마한테 얘기하러 와서
미안해. 정말 힘들고 한데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말도 잘 안 나오고
많이 힘든데··· 이겨내야겠지? 나는 엄마 아들이고 누나의 동생이고 하니까
이겨낼 거다. 믿어 의심치 않지? 내 스스로 항상 마음가짐을 해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엄마.
– 아들 승환

아빠,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에 쪽지 남겨놓고 가~
역시나 내 글씨체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알거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얼마나 아빠를 많이 사랑했는지 알지? 그렇지만 아빠가 나한테 준 사랑의
시간은 너무 짧았어. 13년! 13년이 뭐냐? 20년 동안 나 혼자 크고 자란 거잖아.
그래서 미움도 있는 건지도 몰라. 그건 아빠가 이해해 줘야해.
리고 최대한 빨리 내 곁에 와~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기다리고 있을게.
– 사랑하는 유미가!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오늘은 아빠의 생신날이에요!
아빠의 생신날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요.
아빠는 평생 잊지 못할 내 하나뿐인 아빠에요.
생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보고 싶다고 울지 말고!
사랑해요 ♡♡♡♡♡♡♡
– 딸 도희가

사랑하는 우리아빠
아빠가 우리가족의 가장이라 많이 고맙고 미안했어요.
다음 인연에도 우리 네 사람이 꼭 가족으로 만나요. 사랑해요.
아빠, 아프지 말고 잘 지켜줘요.
자랑스러운 우리아빠의 평생 딸 효은이가 아빠 많이 사랑해 ♡
많이 보고 싶고 보고 싶어요.

할배♡
그러고 보니 나 할배한테 '할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네. 그래도 '할배'가 더 좋지?
할배, 내가 벌써 19살이야. 어렸을 때 맨날 할배 집 가서 백 원, 이백 원씩
몰래 가져가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나도 1년만 있으면 성인이다.
할배가 되라던 선생님은 솔직히 무리이고··· 엄마 아빠랑 얘기 많이 해보면서
경찰공무원 준비해보기로 했다. 꼭 열심히 해서 경달 돼서 제복 입고 할배 보러올게~
할배가 나 많이 도와줘야해~ 고마워♡ 할배 자주 올게♡ 사랑해♡
– 외손녀 햇살이

안녕, 나는 여기에 처음 와보네.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얼마 전에 네 부모님을 봬서 반가웠던 한편, 장소가 병원이라 마음이 편치 않더라.
아직도 병문안 못 간 게 너무 마음에 걸리고, 너무 어린 나이였다는 게
여전히, 그리고 평생 안타까울 것 같아.
감히 네가 있는 곳이 어딘지 추측해볼 수는 없지만,
어디에서든 늘 행복하렴. 또 찾아올게.
– 지환

아버님!
많이 못 찾아봬서 죄송해요. 저희 용인으로 이사 가면 더 어려울 텐데···
아버님께서 조금만 더 오래 계셨으면 우리 소은이도 보셨을 텐데···
살아계실 때 못 해드린 것뿐이라 죄송해요.
제가 이제 아버님 몫까지 신랑한테 잘해줄게요!
그곳에선 건상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 민옥, 소은

사랑하는 내동생!
호진아, 많이 보고 싶구나.
너무나 허무하지만, 내 마음 속에 항상 너의 모습 간직할게!
다음 한국 방문할 때에도 엄마와 함께 너 보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엄마를 부탁한다.

오늘 딱 3년 되는 날이야. 너무 오랜만에 왔지? 미안해.
애들이랑 다 같이 오고 싶었는데 요즘 바빠서 나 혼자 아침 일찍 왔다.
오늘은 다행히 버스도 안 놓치고. 와서 얼굴 보니까 좋네 ^^
나 이번에 출국하면 12월 말쯤 오니까, 네 생일 때 볼 수 있겠다.
그땐 다 같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은혜야, 사랑해.
– 쑤

오늘이 벌써 1년 되는 날이다.
아침부터 비가 와서, 혹시 언니가 슬픈 거 아닐까··· 나 혼자 많은 생각을 했네.
여기 와서 언니 보고 이리 눈물 난 건 처음이네. 잘 참는 나인데···
비도 오고 언니야 생각도 많이 나고, 진짜 너무 보고 싶다.
아프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언니야♡
보고 싶고, 사랑해~♡

사랑합니다, 조여사♡
해가 바뀌고 벌써 100일이란 시간이 지났구나. 너무너무 보고 싶다···
2017년엔 항상 웃는 일만, 좋은 일만 생기게 빌어주라, 진심으로 제발~
너무 힘들어서 엄마 따라 가고 싶다가도 다시 맘을 다잡고 힘낸다.
사랑하는 엄마야~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좀 쉬면서
하나뿐인 엄마 딸 좀 잘 지켜줘~
– 딸 지나가

엄마
요즘 우리가 복잡한 일이 많아. 알고 있제?
근데 걱정하시 말고 그냥 푹 쉬고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재영이 잘 보살펴 줄게. 엄마 아들 아이가! 내 잘할 수 있다.
위에서 신경 쓰지 말고 편안히 쉬고 있어라!
다음에 또 올게.

아버지
미안하고 죄송해요. 호강 한 번 시켜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으로나마 늘 사랑합니다.
식구들 지켜주세요. 건강하도록 지켜주세요.
아버지, 그 곳에선 아프지 마시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지내세요.
우리 다음엔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잘 지내고 있어?
살아있었다면 이맘때 같이 휴가 계획 세우고 생일축하도 같이 했을 텐데···
거기는 더위가 있으려나? 여긴 폭염이 지속돼서 무지 더워.
많이 보고 싶고 그립네. 항상 곁에서 지켜볼 거라 생각하고 있어.
다음에 또 올게~ ^^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편지 쓰네···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지 아프지는 않고?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편안하게 잘 있지?
난 요즘 엄마랑 싸워서 괴로워··· 아빠 빈자리가 이럴 때 크게 느껴지네···
엄마랑 사소한 걸로 싸우니까 너무 힘들어. 안 싸우게 아빠가 도와줘.
결혼하는데 더 이상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결혼할 때 아빠 빈자리가 느껴져서 너무 슬플 것 같아.
아빠, 다음에 또 올게. 보고 싶어. 사랑해, 아빠♥

보고 싶은 유진아빠
자기야, 우리 딸 받아쓰기도 잘하고 어제 수학 100점 받아왔다. 잘하지?
요즘 자기 자꾸 보고 싶네···
자기가 말한 것처럼 힘낼게. 유진이 잘 키울게.
사랑해♡

아들아,
아버지는 아들만 생각하면 그냥 슬프단다.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거라. 경훈이는 아버지가 도울 것이다.
아들아,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Mom!
나 왔지요. 오늘 쉬는 날이라 환이가 같이 왔네.
나 다음 주 휴가 때 여행가요~ 우리 엄마랑 가야 하는데···
참 많이 생각나고 아쉽고 슬퍼. 왜 못 그랬을까···
오늘 날씨도 흐리고 노래도 서글픈 게, 엄마가 더 많이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내가 너무 미안해.
그냥 엄마한테 항상 고맙고 너무 미안해.
언제나 누구보다 우리 엄마를 제일 사랑해♡ 보고 싶당~♡
– 딸 연주

사랑하는 아빠···
잘 지내고 계시죠?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지내는지, 편안한지···
아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불쌍한데···
아직까지 내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나 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아무 걱정 없는 그곳에서 안녕히 계세요.
늘 걱정되고, 생각해요. 사랑해요, 아빠. 그리운 내 아버지··· 보고 싶다.
– 딸 은정

아빠 보러 오기 전, 꿈에 아빠가 나왔어요.
아직도 힘든 모습, 힘든 꿈. 울다가 깼어요.
마음 편하게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제 힘들어하지 마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 딸 민희

아빠♡
오랜만에 딸내미 왔다가요!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내가 늘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잡아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내년에 나 학교 간다. 멀리서도 아빠가 많이 도와줘~!
아빠 많이 보고 싶어♡♡♡ 사랑해!!
– 아빠의 영원한 딸

잘 지내고 있나?
울 큰딸, 항상 늘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다!
아프지 말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
이제 여름이다. 땀 많이 흘리지 말고 하고 싶은 것 다 다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라.
늘 너를 위해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있어.
너무 보고 싶은 딸 ♡

너희 엄마아빠가 함께 못 와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엄마아빠, 누나도 다 잘 있고, 아빠는 과장으로 승진하셨대.
너와 함께한 그 시간들, 힘든 시간이었음에도 참 잘했지.
가족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해줘. 아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게.
넌 편히 쉬고 만나자.

거기에서도 잘 지내고 있지?
너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네.
곧 추모음악회 때는 하늘에서 함께 노래하길···
보고 싶을 때 직접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 속상하지만, 항상 널 기억할게♡

엄마, 엄마 딸 공주 왔다 가요~
내일 휴가 가는데 잘 갔다 오겠다고. 누구보다 엄마랑 같이 가면 좋으련만···
거기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겠지?
항상 내 옆에 있단 거 나 알고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거라 생각할게~
재밌게 보낼 수 있게 계속 옆에서 지켜줘~
사랑해♡ 보고 싶다^^
그럼 잘 다녀올게요~

그렇게 걱정 많으셨는데, 큰아들 무사히 잘 전역했습니다.
기분 좋고 행복한 나날 되도록 앞으로도 잘 지켜봐주세요.
또 올게요.

오빠!
오늘 바람은 좀 불어도 화창한 봄이 온 것 같아요.
오빠 계신 하늘나라도 항상 화사한 봄날이기를 빕니다.

좋은 곳에 가셨나요?
오늘 아버님 가신지 49일째네요··· 아직 아버님 돌아가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영훈이가 2층집에 가면 할아버지 사진을 찾네요. 기특하죠?
훈이가 할아버지 잊지 않도록 많이 이야기 해줄게요.
훈이아빠, 훈이, 저, 어머님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죄송스런 순간들이 생각날 때마다 더 나은 현호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은 엄마 얼굴 잊어버릴까봐 두렵고 눈물도 나요.
매일 엄마 가슴에 새기고 생각할게요.
거기서 맘 편히 행복하게 기다려 주세요. 사랑해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다. 네 빈자리가 너무도 크구나.
어쨌든 편하게 잘 있고, 동생 좋은 사람 만나도록 도와줘.
그리고 아빠도 놓은 자리로 옮겼다. 다 네 덕분이다.
다음에 또 올게.
우리 아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

보고 싶은 우리 아빠~♡
오늘부터 불볕더위가 시작되었어요.
거기서는 시원한 나무그늘 밑에서 휴식하고 계시죠?
밥도 거르지 말고 잘 먹어요.
사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고 싶어요.

아빠
이제 벌써 여름이네.
아빠 없이 보내는 봄이 지나고 여름도 어떻게든 왔어.
오늘은 내 생일···
아빠가 있었음 종일 저녁 뭐 먹을 거냐고 물어봤을 텐데···
보고 싶고 그립다. 아빠, 사랑해.

오늘 누나가 쉬어서 같이 오자고 했지. 잘했지?
누나는 내가 가자고 해야지 같이 오고···
누나 다음 주에 호주 가는데, 가고 나면 혼자 올게요. 갔다 오면 또 같이 오고.
아는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었는데, 요즘 따라 많이 생각나요.
언제나 그립고 보고 싶으며 사랑하는 우리 손 여사님, 사랑하는 아들 왔다 가요.
– 아들 종환

할아버지
오늘도 할어버지 뵙고 가요.
요즘은 꿈에도 안 보이시고··· 좋은 곳으로 가신 거겠죠?
할아버지, 전 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을 쳤어요.
할아버지 말씀처럼 아빠 같은 공무원이 되려고요.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저 이번에 꼭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
– 손녀 혜정 올림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네···
나 야속하지?
하지만 넌 내 가슴 가득 영원한 사랑이야.
조금만 기다려···

사랑하는 오은미!
현조가 내일 군대 갑니다. 부디 아무 탈 없이 잘 보낼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선조 아픈 것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족 잘되게 보살펴 주시오.
없으니 많이 보고 싶네!
미안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오은미씨!

아빠,
엄마랑 이사 갈 집 보러 갔다가 엄마가 아빠한테 가보자고 해서 왔어요.
날씨도 추워지고 비도 오는데, 거기서는 건강하시죠?
엄마, 영민이, 김서방, 저. 항상 행복하게 살게요.
사랑합니다.

엄마♡
오랜만에 왔네.
이제 날씨가 제법 더워졌어. 더위 많이 타는 우리 엄마,
위에서도 다위타고 있는지 몰라!
늘 보고 싶고 사랑해요♥
한번만이라도 꿈속에 나타나줘요···
– 막내딸♥

아빠!
오늘도 1년 전처럼 비가 와요···
보고 싶고··· 전해드릴 말도 많은데··· 다 알고계시죠?
나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갈 테니 꼭 지켜봐주시고,
엄마도 오빠도 동생도 잘 지켜줘요.
사랑해요···

아빠,
추석 때 못 왔네.
얼마 전에 한복 보고 왔다. 다음 달에는 웨딩촬영하고,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어. 결혼은 한참 후에야 할 줄 알았는데···
아빠가 간지도 벌써 4년쯤 됐나? 그런 거 보면 시간 참 빠르다.
다들 그럭저럭 잘 지내. 아빠도 잘 지내, 또 올게.

오랜만에 왔어.
엄마가 겁쟁이라서 여기까지 운전해서 오기가 좀 힘드네, 미안.
꿈속에서 항상 웃는 모습이라서 너무 좋더라.

"박금자 여사님" 보세요.
엄마, 나야. 정말 오랜만이지?
우리 엄마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오더니만, 사랑하는 오빠가
엄마 자리를 대신하는 바람에 자주 못 오게 되었네.
엄마가 하늘에서 만나라고 해준 거 알아, 내가 외로우니까···
아이들 항상 지켜주고, 나 하는 일 잘 되게 도와줘.
♡사랑해♡ 많이 사랑해♡
- 딸 진경 왔다감.

오래도록 안 오다가 이제야 들러서 죄송해요.
앞으로 학교에서도, 몇 년 뒤에 가게 될 직장에서도
아빠가 응원해주실 거라 믿고 열심히 할게요.
엄마 걱정시키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그곳에서도 행복하시고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기를 바라요.
사랑해요 아버지.

할무니~
벌써 돌아가신지 2년이 넘었네요~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죠?
날이 많이 더운데 하늘나라에서도 에어컨 빵빵~하게 트세요.
냉방병은 걸리지 않게~
외할아버지랑 오붓하게 시간 잘 보내세요~♡

to. 우리아빠
사랑하는 첫째 딸이야.
아빠 생각 항상 하며 마음속에 같이 할게♡
하늘나라 가서 엄마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엄마랑 꽃길만 걸어^^
치킨 원 없이 먹구! 아프지 말구!
사랑해 아빠♡

사랑하는 아빠!
많이 힘드셨는데 이제는 편히 쉬시고 주님의 곁에서 안식을 찾으세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와 엄마의 사랑 듬뿍 받고 떠나시는 길, 부디 더 행복하시고···
하늘에서 우리 지켜봐주세요···

외할머니께
외할머니! 저 준서예요.
할머니께 하고 싶었던 얘기들도 많아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항상 우리들을 생각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평생 할머니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저희들 응원해주세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 손녀 윤준서 올림

아빠♡
왜 이렇게 더더욱 보고 싶고 그리운지···
시간이 지나도 똑같네. 괜찮아질 거라 했는데···
아빠아♡ 목소리도 듣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아보고 싶다···
사랑해.
– 많이 보고 싶은 아빠 딸, 영이가

할아버지!
잘 못 찾아봬서 죄송해요.
할아버지 말도 잘 안 듣고 맨날 속만 썩이고···
저 진짜 할아버지 생각도 많이 하고 올 때마다 편지도 한 장씩 써올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었잖아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천국에서 기다려 주세요!!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할머니랑 만나서 못한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즐겁게 데이트 하세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제 부모님과 같았어요.
꼭 가고 싶은 곳, 좋은 곳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사랑해요.

아버지,
깨달음 주고 가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딸로서의 삶이 싫었던 철부지였으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딸로 태어나고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려요.
하느님 품에서 평안히 축복 받으셔요. 사랑합니다.

아빠!
갑자기 갈 줄은 몰랐어. 이번에도 깨어나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마지막인줄 모르고 화내서 미안해···
같이 여행도 못 가서 속상하지만, 좋은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나 잘 살고 있을 거니까 걱정 마! 사랑해♡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도 아빠가 되어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날까지 길러주셨는지···
힘들 때면, 아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많이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하네요.
앞으로 가족 모두 잘 되도록 잘 지켜봐 주세요.
잘 지내세요.

사랑하고 보고 싶고, 미안하고 고마운 우리 엄마
이제는 불러 봐도 대답 없는 그리운 우리 엄마
한평생 고생만 하시고 7남매 키우며 근심 걱정 떠날날 없이 사시다가
가시고 나니 죄스럽고 후회만 남습니다.
저도 엄마 생각하며 더 소중한 시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엄마를 생각하며 가슴에 묻어두고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원하는 곳에 태어나소서···

그가 없는 이 땅 아래 쓸쓸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기다려라. 충분히 즐기고, 따사로운 날 널 만나러 갈 테니.

오늘도 당신 있는 곳에 찾아와 '당신'이라고 불러본다.
언제든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오.
항상 앞만 보고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다오.
사랑하는 당신이여.

불러도 대답 없는 당신이여,
오늘도 찾아와 얘기하고 간다.
나는 오늘도 당신 생각에 여기까지 왔다.
또 나 혼자만 얘기하고 돌아간다.
잘 지내다오, 보고 싶소.

아버지,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많은 기쁨 드리지 못한 못난 자식이라 죄송합니다.
편히 쉬세요.
지금 엉클어져 있는 저희 가족들 관계 잘 풀어져서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내 곁을 떠나 이곳에 온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도 보고 싶고 너무도 그립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것을 잊으시고 아픔 없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곳에 남아있는 나와 동생, 자식들 걱정 말고 해복하고 건강해요.

사랑했던 아빠!
내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길러 보니 부모의
사랑이 어떤건지 잘
알겠어요. 많이 많이
보고싶어요!

심영지 님아, 사랑해요.

보고싶다.

또은게 ..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때 병원에
있어서 뵈러 못했는데 오늘이 되서야
뵈러왔네요. 친 아버지처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위에서도 잘 계시길
바래요. 나중에 또 뵈러 올게요.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수정-

여보 오랫만이오
벌써 1년이네요
잘 있지요 애들 걱정말고
편안하게 잘 있어요
많이 보고싶고 사랑해요

짝사랑 내 아들아
또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알지
먼훗날 만날때까지
편히 쉬렴
엄마가

I miss you...

외할아버지 사랑해요♡♡♡♡

윤희

2017년 7월 27일

사모님는 엄마 56번째생신
축하해♡ 너무 보고싶은 엄마가
좋아하는 백합꽃 직접 포장해서
이렇게 엄마보러 왔어요"
엄마 사랑해요 많이많이♡

가윤아!
이쁜우리 가윤아!
미안해. 미안해
엄마는 돌려보내 후속
했지만 정말
사랑했었다...

- 하나뿐인 엄마다달지나 -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가신 길에
비가 내립니다.
부디 아픔없는
좋은 곳에서 극락
왕생 하십시오.

mẹ ơi
Phù hộ cho vợ chồng con
mạnh khoẻ, phù hộ cho mạnh khoẻ
mau lớn, phù hộ cho tuổi con
sanh thêm cháu cho mẹ
vui.
gia đình con
♡ yêu mẹ

지팡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했었다
좋은데 가서 잘살아라
사랑했었다

2017. 8. 10

못해주시서
이연개

-만수이 둘째딸-

내가 '꼭' 선물 단한번도

사랑하는 당신
보러 왔는데 보고있
어요 그곳 왕생하
시며 아픔데 없이
잘지내세요

사랑하는 아빠바 ♡
그곳에선 잘 지내시죠?
12월. 정민이랑 할아버지 보러
왔어요. 여전히 많이 보고싶고
그립습니다 ♥ 영원히 사랑합니다♥

" 막내딸, 세영드림 "

보고 싶은 내사랑 소근씨~♡
아부지~ 잘있는 거죠??
우리 다은이가 할아버지를 엄청
닮은것 같애~ 아부지). 오빠도.
나두 모두 힘든일 없게. 엄마와
다은인 아프지 않게.. 모든 일이
잘되게 도와줘요 ♡. 꼭~♥
또올게~♡

주순자 강보님께
이 세상에서 못다하신꿈
저 세상에서 꼭 이루셔요!

서울 강두오 Dream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내 맘~ 보고 싶다 김현주~

하늘아 사랑한단다.

아빠!
보고 싶으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네.
아빠. 사랑해.
또 올게.

— 지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하는 당신의
64回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항상 행복하세요
경숙 낳은 공성!!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지켜 가면서
사랑을 시작합니다.
감사드려요. 아버지.
하늘나라 사랑하는 당신의 여러분께서도
사랑합니다

보고싶은 아빠♡
요즘 더운데 여기는 시원하네
아빠 더위 많이타는데 시원하게
잘있지?
아빠 다음에는 오빠랑 같이올게
아빠가 보면 좋아할텐데..♡
결혼준비 잘해서 또올게요.
사랑해 아빠, 너무 보고싶다♡

부건아..
보고싶은 아들.
맘이 미안하고 가슴만 아픈 너들.
엄마는 항상 이 가을만 되면
가슴 앓이 하면서 지워둡만으로
지내는것 같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은겸-

潁陽千氏
聖年位
편안히 쉬십소서.
2017.1.23. 김만

아빠 & 설윤이 할아버지
너무 자주 못와서 죄송해요.
우리 잘지내고 있으니 걱정말구
항상 지켜봐주세요.
항상 늘 사랑해요♡
- 아빠딸♡

외할아버지께♡
외할아버지 크게 인사에요.
요즘 너무 더운데 하늘나라도 덥네요? ^^
외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ㅠㅠ
많이 올게요. 다음 기일도 빨리오기를...
그래야 외할아버지를 만날수 있으니...
- 은서가 -

어머니 ?
이제 그만, 아세상의 모든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즐거운
소풍놀이 시작하세요

저희 "용"에게 용기의 복을 주세요.

2017년 11월 1일.
쌀쌀한 가을 날씨에
어머님의 생활은
어떠신지
하늘 나라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죠.
아픈 며느리 드림

2017.01.01

아빠, 보고싶다. 많이.
아빠 있으면 아빠 앞에서
실컷울고 위로 받고싶은데..
사랑해요 아빠.

아빠♡
새해 인사하러 왔어^^♡
늘 보고싶고 그리워..♡
올해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할수 있게 지켜주 ♡

-아빠를제일사랑하는딸 영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 하루
즐겁게 지내세요!

아버지 사랑 담아

김·김·자 육모님께.
힘들 일 참한 기쁨에 슬프.
가끔 행복하고, 고통없고.
사프지 않으겠습니다.
항상 웃겠고 행복한
일만 생기시요
항상 감사했습니다

- 조카 -

아빠지
보고가만해도 눈물이
쏟아질것 같아요.
너무 보고싶고. 보고싶어요

그리워요.

- 초초 달이두 아빠!

벌써 2017년이야
1년이 지났네? 나 2017년
정말 열심히 하려구!
잘 지켜봐줘 알겠지??
아빠도 잘지내고 있지??
사랑해♡ 또 올게~

- 아빠의 귀여운 둘째딸♡ -

대한민국
모든 소방관을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사랑합니다

소방대원들 화이팅

진우
효정
지은
예진
현아
주연
보경
미지
창현
아린

2017.7.29

당신의 여신후
(희야)
내 가슴속 한쪽은
늘 아픔으로 남아 있지만.
당신의 명복을 그립습니다.

부 록

공단 및 울산하늘공원 소개

울산시설공단
Ul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

울산하늘공원

스포츠 시설

15개 시설
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종하체육관, 동천국민체육센터, 문수축구경기장, 문수실내수영장, 문수실내사격장, 문수테니스장, 시립문수궁도장, 문수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문수론볼경기장, 문수야구장, 문수풋살경기장, 동천다목적구장, 문수스쿼시경기장

공원 시설

4개 지역
울산체육공원, 울산대공원, 태화강역광장, 문화공원

울산시설공단
Ul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

도심 가로녹지

20m이상 도심가로녹지
가로수 : 139개 노선 293.37km

문화시설 복지

6개 시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가족문화센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현충탑,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장사시설

울산하늘공원
장례식장, 승화원, 추모의 집, 자연장지

울산대공원

울산대공원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시민들에겐 재충전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속 생태의 공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울산체육공원

울산체육공원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위한 경기장을 중심으로 주변녹지 및 자연호수를 정비하여 보다 아름답고 편안한 테마공원 형식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문화공원

문화공원은 문화 예술회관, KBS방송국 등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도심속 테마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태화강역광장

태화강역광장은 주차장, 파고라, 관광안내소, 분수시설, 다목적 놀이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울창한 산림수목 공간이 태화강역 좌우로 조성되어 생태도시 울산을 소개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은 24시간 개방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넘어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수축구경기장

문수축구경기장은 44,47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축구전용경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기장으로 손꼽히며 울산 제일의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천체육관

동천체육관은 전국규모의 농구, 배구 등의 실내경기 유치와 대형콘서트 등 스포츠와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천국민체육센터

동천국민센터는 수영, 스쿼시, 배드민턴, 검도, 에어로빅, 요가, 댄스스포츠 등 다양한 생활체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수실내수영장

문수실내수영장은 비상하려는 학의 모습을 담은 외형으로 국제경기를 치룰 수 있는 국제규모의 시설을 활용한 맞춤식 프로그램 제공으로 울산의 대표적인 종합체육시설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수테니스장

문수테니스장은 21세기 생활체육의 저변확산을 위해 시설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수실내사격장

문수실내사격장은 울산체육공원의 맑은 공기와 자연, 사격의 짜릿한 맛을 만끽할 수 있는 사격 대중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문수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문수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은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활성화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론볼경기장

문수론볼경기장은 흰색 표적구를 먼저 던지고, 원형의 볼을 굴려 표적구에 가까운 볼의 숫자에 따라 승부를 가리는 론볼을 야외에서 따사로운 햇살과 싱그러운 바람을 맞으면서 상쾌하게 즐길 수 있으며, 경기하면서도 서로 대화도 나눠 우의를 다질 수 있습니다.

문수야구장

문수야구장은 울산의 유일한 야구 전용구장으로서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울산의 야구문화가 생활스포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립문수궁도장

시립문수궁도장은 국궁을 통하여 조상의 얼을 계승하고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족문화센터

가족문화센터는 시민의 잠재능력 개발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과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예식장, 대연회장, 강의실, 체육관 등) 대관서비스로 웰빙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예식장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을 위한 취미교실과 근로자 및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교실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가로녹지

가로녹지는 푸른 울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폴 20M이상 주요 가로변의 가로수, 수벽, 교통섬, 소공원의 수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상시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전정, 지주목 정비, 병충해방제, 잡초제거 등 건강한 가로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울산하늘공원

울산하늘공원은 3차연소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친환경 장사시설로 장례, 화장, 봉안, 자연장지까지 One-Stop으로 고인을 편안하게 모시는 시설을 갖춘 첨단 종합장사시설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의 취업 · 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과정을 개설 · 운영합니다.

울산하늘공원

시설현황

건립연혁

2003. 10.	울주군 삼동면 주민 자발적 유치 신청
2008. 6.	기본실시 설계 완료
2009. 6.	울산하늘공원 건립공사 착공
2012. 11.	울산하늘공원 준공
2013. 3. 1	울산하늘공원 개원

위 치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사업기간 2003년 10월 ~ 2012년 11월

시설규모 부지 98,026.1㎡, 건축연면적 13,522㎡

주차시설 412대(일반 380, 대형 14, 장애인 18)

주요시설 승화원(화장로 10기), 장례식장(빈소 5실)
추모의 집(20,016위), 자연장지(60,500위), 유택동산

1 승화원

2 장례식장

3 추모의집

4 자연장지

5 유택동산

시설현황

3층	화장로 기계실
2층	화장로 10기(일반-8기, 대형-2기), 수골실(2실), 유족대기실(10실), 탈상실, 식당, 카페
1층	관리사무실, 종합안내데스크, 고별실(4실), 안내키오스크, 무인민원증명발급기, ATM, 휴대폰충전기

연 면 적	7,853㎡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운영시간	08:00~17:00 (연중무휴 ※설·추석 휴무)	이용안내	052-255-3800

화장 이용시간

차 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화장시간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화장대상	희생·공헌자	관내/관외					개장유골/죽은태아	

※ 화장시간 30분 전까지 승화원 도착 및 서류 접수

- **e-하늘접속 화장예약** — 보건복지부 e-하늘 www.ehaneul.go.kr
- **안내 데스크 접수** — 접수실에서 신청
- **운 구** — 관운반차로 시신운구
- **고 별** — 고인과의 이별
- **화 장** — 1시간30분 소요
- **유골 인도** — 추모의집, 자연장지, 유택동산 봉안

울산하늘공원

로전실

화장로

무인자동유골운반차

나전칠기 관운반차

종합안내데스크

고별실

유족대기실

탈상실

감면대상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감면(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구비서류

- 병사 | 사망진단서
- 외인사 |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 죽은태아 | 사산확인서
- 개장유골 | 말소자 등·초본, 개장신고필증
- 외국인 | 사망진단서, 화장동의서(대사관발급)
- 울산하늘공원 사용허가신청서

관외요금감액

감액50%

- 관외 주민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감액30%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상, 품질명장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받은 우수기업인 및 근로자
- 관내에 1년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이상 지방세 납부자

장례식장

빈소

영결식장

시설현황

2층	빈소(5실), 접객실(5실) 가족휴게실 (3실)		
1층	안치실(2실, 14기), 염습실, 영결식장, 장례용품점, 매점, 화원, 안내키오스크		
연 면 적	2,952㎡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운영시간	24시간(연중무휴)	이용안내	052-255-3860

장례상담 → 안내데스크접수 → 안 치 → 염 습 → 입 관 → 발 인

안치실

장례용품점

접객실

가족휴게실

참관실

신근조화(스탠드형)

신근조화(계단형)

※울산하늘공원 장례식장에는 신근조화만 설치 가능합니다.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구비서류

- 병사 I 사망진단서
- 외인사 I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 울산하늘공원 사용허가신청서

추모의 집

시설현황

2층	봉안당(12,411위)		
1층	봉안당(7,605위), 사이버추모실, 제례실(4실), 옥외제례단		
연 면 적	2,420㎡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운영시간	09:00~17:30	이용안내	052-255-3870

신 청 → 접 수 → 봉 안

봉안당(개인)

봉안당(부부)

실내제례실

헌화대

사이버추모실

옥외제례단

감면대상

감면(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 공헌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구비서류

- 말소자 등 · 초본(시설변경시)
- 화장신고증명서
- 타 시설 사용증명서(시설변경시)
- 울산하늘공원 사용허가신청서

자연장지

자연의 품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장지!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을 수목과 잔디에 모시는 자연친화적 안장 방법입니다.

시설현황

잔디장	9,307㎡(개인장 / 부부장) (57,770구)
수목장	2,000㎡ (2,730구)
공원시설	8,202㎡
운영시간	09:00~17:30
이용안내	052-255-3880

신 청 → 접 수 → 안 장

울산하늘공원

수목장

잔디장

관리사무실 및 제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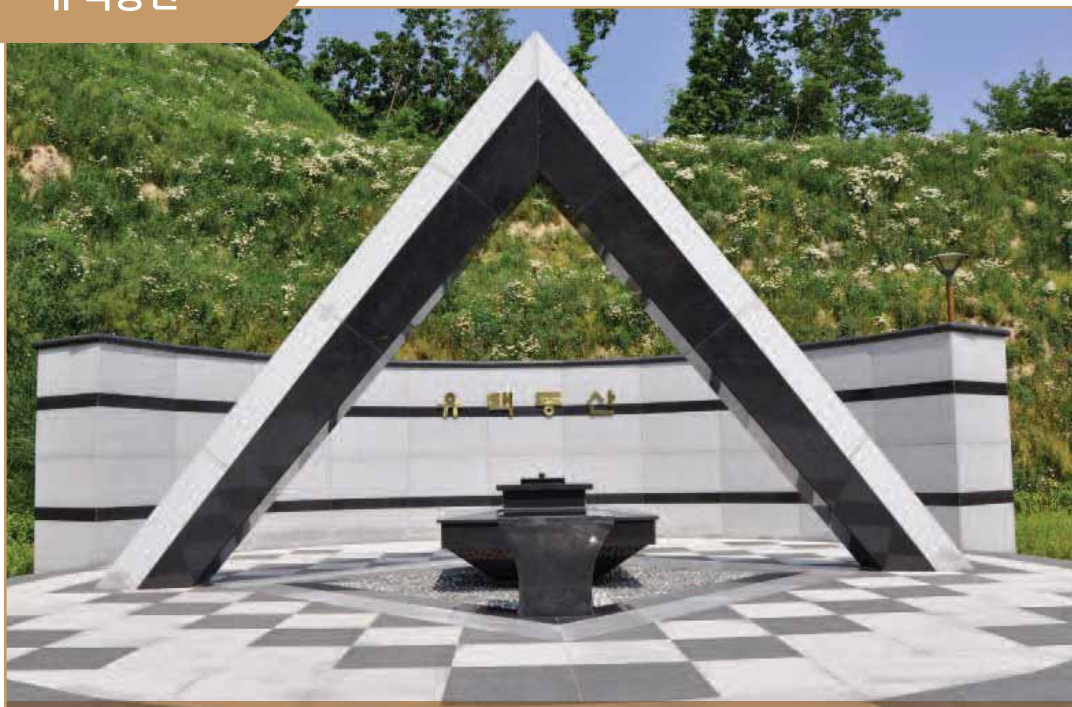
감면대상

감면(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 · 공헌자
-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구비서류

- 말소자 등 · 초본(시설변경시)
- 화장신고증명서
- 타 시설 사용증명서(시설변경시)
- 울산하늘공원 사용허가신청서



유택동산

시설현황

운영시간 09:00~17:30
이용안내 052-255-3870

신 청 → 접 수 → 봉 안

감면대상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 공헌자
-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감면(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구비서류

- 화장신고증명서
- 말소자 등 · 초본(시설변경시)
- 타 시설사용증명서(시설변경시)
- 유골포기각서
- 울산하늘공원 사용허가신청서

유택동산의 유골함이 가득 찰 경우 자연장지 내 산골장에 공동 안장 합니다.

울산하늘공원

식당

카페

옥외휴게실

정보검색대

수유실

안내키오스크

무인민원증명발급기

ATM

편의시설

울산하늘공원에서는 유족과 이용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

- 식당 / 카페 / 매점 / 자판기
- 화원 / 각인실
- 정보검색대
- 수유실
- 안내키오스크
- 무인민원증명발급기
- ATM
- 옥외휴게실

울산하늘공원 사용시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시 설	증명서류	비 고
승화원	• 병 사 ㅣ 사망진단서 • 외인사 ㅣ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 죽은태아 ㅣ 사산확인서 • 개장유골 ㅣ 말소자 등 · 초본, 개장신고필증 • 외국인 ㅣ 사망진단서, 화장동의서(대사관 발급)	승화원 1층 종합안내데스크 사용 상담 및 신청 ☎052)255-3800
장례식장	• 병사 ㅣ 사망진단서 • 외인사 및 기타 ㅣ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추모의 집 자연장지 유택동산	• 말소자 등 · 초본(시설변경시) • 타 시설 사용증명서(시설변경시) • 화장신고증명서 • 유골포기각서(유택동산)	
공통서류	• 울산하늘공원 사용허가신청서	

감면대상

시 설	구 분	감면대상
승화원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 공헌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거주하는 100세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80% 감면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관외요금 50% 감면	• 관외 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등록 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관외요금 30% 감면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받은 우수 기업인,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장례식장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중 무연고자
추모의 집 자연장지	50% 감면	•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관내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관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중 무연고자

편집후기

울음 섞인 글을 더하거나, 보탬이 없이

유족의 슬픔과 당시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전하지 못한 편지」 이 글을 읽는 모든이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늘편지를 작성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울산하늘공원

하·늘·편·지·세·번·째·이·야·기

전하지 못한 편지

발 행 | 울산시설공단(하늘공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조일리 15-22)
전 화 | 052)255-3800
팩 스 | 052)255-3809
인 쇄 | 사회적협동조합 디자인헤움(042-538-1760)
발 행 | 2017년 12월
홈페이지 | http://www.uimc.or.kr(울산시설공단)
http://www.skypark.or.kr(울산하늘공원)

이 책의 저작권은 울산시설공단 소유이므로, 내용의 무단복제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